

연못골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연못골 제 617호

10-11

130 YEARS

ANNIVERSARY



실만한 물가

일상은 대부분 산기슭의 삶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누구나 같은 곳을 지납니다.

죽을 만큼 힘든 고비를 지나서 갑니다.

그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길은 더 어둡고 험합니다.

내가 순간순간 감사를 결정하지 않으면 나를 불만에 빠뜨리고,

기쁨을 결정하지 않으면 나를 짜증에 빠뜨리고,

기도를 결정하지 않으면 나를 염려에 빠뜨깁니다.

꿈꾸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장애물을 볼 때에도 가능성을 보며,

모든 사람이 낙심할 때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도대체 왜 저런 일이 일어나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별 생각 없이 사는 나를

깊이 생각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일들입니다.

살다가 누구나 넘어집니다.

넘어진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과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망의 계곡을 건너지 않고

희망의 정상에 이른 사람은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고개를 들면

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훈전은 근육을 단련하고,

고난은 영혼을 연단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를 계속 물으면 분노가 자라고,

왜 내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를 질문하면 감사가 자랍니다.

CONTENTS

2024년 10 - 11월호

04 이달의 말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지만 가장 평범하게 김주용 위임목사

06 특집1-교회창립 130주년

130년, 연동의 오늘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진으로 만나는 연동교회 100년에서 130년

풍성한 은혜로 채워진 130주년 기념예배

‘하나님의 때, KAIROS 130’ 기념음악회

제 9회 게일문화상, 송암봉사상 시상

‘130인 엮음 성경필사’ 헌정

19 특집2 -130주년 말씀사경회

그리스도의 공생애

연못골 광장

- 22 1018예수사랑 마커스워십 초청 집회와 중고등부 연합 야외예배 안민영 성도(중등부)
- 23 2030새벽이슬(1)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윤경희 성도(HI 청년부)
- 24 2030새벽이슬(2) 불평불만에서 감사로 옮겨준 성경필사 서유니 성도(HI 청년부)
- 25 4050광장 필사와 함께 다시 만난 마르틴 루터와 찬송가 신기루 집사(연희홍제구역))
- 26 살며생각하며(1) 연동교회 130주년 기념 "성경필사의 은혜" 오정애 공로권사(일산구역)
- 27 살며생각하며(2) 성경필사하며 받은 은혜 황석상 안수집사(고양구역)

청년광장

- 28 HI청년부 2024년을 보내며 2025년을 준비한 하이청년들

주님과 함께하는 삶

- 30 그리스도인의 영화(드라마) 바라보기(5) 정글북 & 와일드 로봇 김윤기 목사
- 32 연동 Before & After (6) 연동의 이웃 풍경
- 34 교회개혁과 한국교회 트렌드(3) 선교 : 사회선교와 퍼블릭 처치(Public Church)
- 36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09회 총회
- 38 100주년을 맞은 NCCK와 연동교회
- 40 칭찬합니다(13) “안시보 명예권사님을 칭찬합니다!”
- 41 12, 1월 행사안내 / 제207회 서울노회

선교

- 42 태국 - 치앙마이 홍수 서경석, 박형경 선교사
쿠바 - 전염병 '오르푸치열' 확산 이범찬 선교사
콜롬비아 - 모두 안녕 박재현 선교사
인도네시아 - 사랑의 공동체 건축 보고 김태환, 주애니 선교사
44 중국어예배반 중국유학생들을 위한 차이스타 집회 참석 류애정(중국어예배반)
45 필리핀예배공동체 WIN-Seoul이 함께한 연동교회 130주년 Abel Raby 목사

청소년주일학교 소식

- 46 청소년주일학교
54 주니어콰이어, 교회창립 130주년 찬양 녹음
55 아름꿈방 “책 바자회+기부” 소식

연못골 사람들

- 56 HI연동청년, 소명 도전기(14) 음악 사역자 오요셉
58 새신자 어게인(17) 오래된 새신자, 이제는 연동의 밑알이 되기를 고석주-북현정 부부(압구정청담삼성구역)
60 신임목사 인터뷰(1) “오한빛 목사님, 반갑습니다!”
62 신임목사 인터뷰(2) “이진우 목사님, 반갑습니다!”
64 이임목사 인터뷰(김현철 목사) “연동에서 만남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65 지체들
88 새가족 소개
89 연동복지재단
90 신헌 현황, 목양위원회
91 연동컬러링

표지설명

제목: 연동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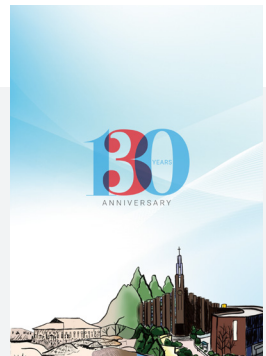
크기: 1795 x 2622 px

재료: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

제작일: 2024년 11월 7일

그림 내용: 130년의 시간이 흐르는 이 표지는, 신앙의 뿌리와 미래의 소망이 어우러져
힘차게 나아가는 연동교회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작가: 김 환 목사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지만 가장 평범하게

소설 '마음의 부력'으로 제 44회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은 이승우 작가는 2006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튀르키예의 작가 오르한 파묵(Orhan Pamuk)의 "나는 사무원처럼 일한다"는 인용을 통해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습작 시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를 쓰고 싶은데, 끝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시 대신에 산문과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그 이후 자신의 글쓰기는 직업적 글쓰기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딱분하고 싫증 나는 규칙과 반복의 연속인 작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글쓰기는 그저 '사무원처럼' 일한다는 오르한 파묵의 말을 증명하는 삶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사무원처럼 일한다.

목사라고 뭔가 거창한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은 오래 전의 기대였습니다. 그래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신비로운 체험이 있지 않을까 은근슬쩍 기대했던 그때를 회상하면, 창피하기보다는 멋쩍다는 표현이 맞아 보입니다. 여전히 설교단에 서면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후들거리고, 아직도 단에 오르기 전, '용기를 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목사 초년생의 때를 벗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해 교회의 구도자로서의 길을 걸으면서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은 '목사는 성도들의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팬이 되어야 하고, 교회 주식회사의 사장이 아니라 복음 공장의 사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교회 비전을 '담대하게 거침없이'로 정하고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땀도 많이 흘렸고 다리가 완전히 풀릴 정도로 뛰어왔습니다. 사역이 끝날 때마다 긴장이 풀려 머리



김주용 위임목사

정수리부터 물려오는 편두통에 ‘타이레놀’은 어느새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도전해왔고, 물론 실패도 했고 좌절의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는 뒤를 돌아볼 겨를 없이 내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뛰고 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우리 모두는 누구 하나 회사의 임원이나 상사처럼 일한 성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무원처럼 일해왔습니다. 두세 번 해온 YD페스타와 대외 행사는 규칙과 반복에 익숙해져 왔고, 쓰고 틀리고 쓰고 고치는 것을 수없이 해오면서 성경을 필사하는 경건한 마음 대신에 우리는 감정 없는 서기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썼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동의 모든 가족들이 한 해 내내 “130년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를 앵무새처럼 반복하여 기도의 모습 속에 도리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러나 가장 평범하고 담담한 성도들처럼, 연동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 엇비슷한 1000 피스의 조각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승우 소설가가 인용한 오르한 파묵의 “나는 사무원처럼 일한다”는 메시지는 130년을 맞이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아무 일 없듯이 감당해낸 연동의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 위로의 말이라 믿습니다.

2024년도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고자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의 자리는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곳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위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가기 전, 그러지 않아도 될 가장 소소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해내려고 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범함과 일상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130년, 연동의 오늘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차〉

사진으로 만나는 연동교회 100년에서 130년---7p

풍성한 은혜로 채워진 130주년 기념예배-----10p

‘하나님의 때, KAIROS 130’ 기념음악회-----11p

제9회 게일문화상, 송암봉사상 시상-----13p

‘130인 엮음 성경필사’ 헌정-----16p

기획 및 취재, 기사작성: 김종은, 박윤신, 양진실, 오수희, 이지원,
임재철, 진상협 기자, 박현미 편집장



사진으로 만나는 연동교회 100년에서130년

연동교회의 130년은 그 긴 시간만큼이나 안팎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세대의 변화, 공간 사용의 변화, 코로나 시국과 같은 상황에 따른 예배 방식의 변화 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것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며 이웃과 함께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연못골에서는 130년의 시간 가운데 100년에서 130년까지 30년의 시간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 시간을 되새기고 기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01 1995년 12월 여전도회 김장담그기

02 2003년 부활주일 사랑의 헌혈_1970년부터 봄 가을 2차례 실시_현재는 시행하지 않음

03 1998년 강화수양관 봉헌 감사예배(다승관)_1989년 부지 매입 후 9년 만에 예배처소와 숙식처소 마련

04 1999년 10월 105주년 기념 연동복지문화관(현 가나의 집) 기공 예배

05 2000년 7월 25일 과산지역을 위한 전도집회_2000년~2002년까지 진행

06 2004년 백합의 돌 봉헌 예배_연동교회 창립 110주년 기념사업



07 2011년 6월 장로선출 투표_첫 OMR 카드 사용

08 2013년 8월 한국-캐나다 수교 50주년 기념

캐나다 선교사 7인 가장 행렬

09 2018 12월 이성희 목사 원로 및 공로 목사 추대

10 2019 1월 김주용 목사 위임 예식



- 11 2021년 9월 코로나 거리두기
- 11-1 거리두기 좌석 번호가 표시된 주보
- 11-2 QR코드로 방문 기록 확인 및 예배 참석
- 11-3 개인용 성찬 키트
- 11-4 악수대신 주먹 인사
- 11-5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찬양대
- 12 2019년 5월 본당 현 더게일홀 자리에 있던
모자예배실(영아부실)
- 13 2022년 7월 가나의집으로 옮긴 영아부실
- 14 2021년 10월 더게일홀 개장 기념예배
- 15 2024년 10월 강단 리모델링을 마친 본당

풍성한 은혜로 채워진 130주년 기념예배

10월 20일 주일 오후 3시 본당에서 교회창립 130주년 기념예배가 드려졌다. 1부 예배에서 게일 목사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신학지남, 1921년/김윤기 목사 낭독)와 함태영 목사의 “성령과 함께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히년기념설교집 조선기독교교회, 1940년/함재봉 집사 낭독) 설교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2부 기념음악회는 <하나님의 때, KAIROS 130> 주제로 교회창립의 때(게일찬양대), 평신도 사역의 때(남선교회.여전도회 찬양대), 다음세대 계몽의 때(주니어콰이어, 청소년 주일학교 연합찬양대), 성전재건의 때(연못골찬양대), 사역의 확충과 안정의 때(부용찬양대), 미래 비전의 때(트리니티 밴드)순으로 진행하였다. 연합찬양대의 “연동아 빛을 발하라” 찬송



을 마지막으로 음악회를 마쳤으며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연동교회에 주셨던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3부 시상 및 헌정식에서는 게일문화상 수상자인 (사)필레마 필름 포럼과 송암봉사상 수상자인 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예방센터에 상장을 거행하고 <130인 역음 성경필사 헌정식>을 진행하였다. 기념예배는 “여기에 모인 우리” 결단찬양과 김주용 위임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하나님의 때, KAIROS 130’ 기념음악회

130주년 기념예배 2부순서로 진행된 ‘하나님의 때, KAIROS 130’ 기념음악회는 김주용 위임목사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1, 2, 3부 찬양대와 트리니티밴드, 청소년주일학교, 남녀선교회까지 전 세대가 골고루 참여한 이번 기념음악회는 연동교회 130년을 시대변화를 바탕으로 각 찬양대가 골고루 나눠 맡아 그에 맞는 곡으로 찬양했다. 음악찬양부(부장 김진호 장로)는 각 찬양대의 찬양을 뒷받침해줄 연동교회 역사를 영상으로 제작해 찬양 사이사이 상영해 연동의 역사를 눈으로 보며 귀로 듣는,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날 게일찬양대는 초창기 기록물 영상과 함께 한복을 입고 등장해 양산도 가락에 맞춰 게일 목사가 지은 노랫말로 찬양했고, 남선교회·여전도회 찬양대는 교인들과 함께하는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주니어콰이어, 청소년주일학교 연합찬양대는 신나는 율동과 함께 찬양해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고, 연못골찬양대는 연동교회 예배당 변천사와 함께한 신앙의 모습을 담아낸 찬양을 드렸다. 부용찬양대는 군부시대 저항하는 민중의 모습을 담아낸 김민기 노래와 함께 김형태 목사님과 이성희 목사님 시대 교회의 모습을 찬양하였다. 트리니티 밴드는 김주용 위임목사와 함께 시작된 교회 갱신의 변화를 향한 원인을 본 회퍼 목사의 곡으로 담아냈다. 마지막 순서로 미래를 향한 연동교회의 사명을 실어 모든 찬양대가 연합으로 “연동이 빛을 발하라”(제갈수영 곡)를 힘차게 찬양하고 순서를 마쳤다. 이번 기념음악회는 지난 130년간 연동교회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Kairos)를 따라 이어져 왔으며, 우리에게 임한 은혜 역시 하나님의 때 안에 있었음을 되돌아보고 깨닫게 한 귀한 시간이었다.



교회창립의 때/ 게일찬양대: 꽃과 새를 보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894년 하나님께서는 연못골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다. 연동교회 초대 목사로 부임한 제임스 게일 목사는 “꽃과 새를 보라”는 가사를 지어 양산도 가락에 맞춰 찬송을 부르게 하면서 기독교 문화 보급에 앞장섰다.

평신도 사역의 때/ 남선교회, 여전도회 찬양대: 예수의 일흔은(김형준 편가)

하나님께서 연동교회를 통해 평신도 활동의 초석을 놓으셨다. 평신도 활동에 선도적인 위치에 서서, 1916년 남선교회의 전신인 장신회와 여전도회의 전신인 흥신회를 조직하였다.

다음세대 계몽의 때/ 주니어콰이어, 청소년주일학교 연합찬양대: 연못골의 꿈,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구한말, 연동교회는 다음세대를 꿈꾸었다. 1898년 교회 내 설립된 연동소학교는 1909년 정신여소학교, 경신남소학교로 개명하였다. 또한 1907년 한국교회 최초로 주일학교의 전신인 소아회를 조직하였다.

성전재건의 때/ 연못골찬양대: 주의 말씀 듣고서, 믿음 위에 굳게 서리라

1894년 시작한 연동교회는 이후 두 번째 예배당(1895~1900)과 세 번째 예배당(1900~1907), 네 번째 목조교회당(1907~1942), 다섯 번째 2층 교회당(1954~1970)을 거쳐 지금 교회당인 여섯 번째 교회당(1977~현재)을 세웠다.

사역의 확충과 안정의 때/ 부용찬양대: 금관의 예수, 다시 거룩한 교회로

군부독재시절, 6대 김형태 목사(1967~1989년 시무)는 연동교회가 사회정의를 위해 앞장서도록 했고, 교회 내적으로 구역회와 교회교육에 힘을 썼으며, 도시 선교에 이바지했다. 7대 이성희 목사(1990~2018 시무)는 교회 조직 개편과 제도 개혁을 실행하며 미래목회로 교계를 이끌었다.

미래비전의 때/ 트리니티 밴드: 선한 능력으로

2019년 부임한 8대 김주용 목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복음의 전통적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 130주년을 맞이한 연동교회는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되새기며 한국교회와 세상에 다리를 놓는 복음사역을 위해 앞장서서 나아갈 것이다.



제 9회 게일문화상, 송암봉사상 시상

게일문화상: (사)필레마 필름포럼 / 송암봉사상: 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예방센터

<심사 과정>

서류 접수: 8월 25일(주일) 마감일까지 게일문화상 9개 팀(개인 1, 단체 8), 송암봉사상 13개 팀(개인 9, 단체 4)이 서류를 접수했다.

심사 기준 확정: 9월 7일(토) 내부심사위원(최기식, 이수진, 박재천, 방영민 장로)과 사무국(국장 최기식 장로, 서기 김진양 장로, 간사 박종화 집사)의 회의를 거쳐 내부 심사기준을 마련했는데, 게일문화상은 기독교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곳, 세속 문화에 대해 기독교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곳으로, 송암봉사상은 교회와 사회를 넘나드는 연동교회 가치에 부합하는 곳, 시대적 과제에 따른 봉사의 유형을 보여주는 곳으로 하되, 두 상의 공통사항으로 지원이 부족한 곳,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곳으로 기준을 정했다.

접수 서류 열람과 합평: 9월 8일(주일) 사무국 내에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된 모든 서류를 자유 열람한 후 내부 심사위원과 사무국 봉사자가 함께 접수된 서류 합평을 실시했다.

심사위원 심사: 9월 12일(목)에는 위원장(김주용 위임목사)과 내부, 외부 심사위원들 전체회의를 열었다. 심사기준에 대한 전체 의견교환 후 각 심사위원회 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했다. 그 가운데 임성빈 게일문화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본인의 제척사유를 사전에 표하여 외부위원 1인과 내부위원 3인 등 총 4인으로 심사를 진행했고, 만장일치로 수상자를 결정했다.

수상자 확정: 9월 29일(주일) 수상 후보자에 대한 평판 조회 결과 사무국 회의를 통해 공유 후 수상자를 확정했다.

<심사위원 명단>

구분	게일문화상	송암봉사상
외부	임성빈(위원장/장신대 전 총장) 옥성삼(기독교연론포럼 사무총장)	이재열(위원장/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서울장신대 교수)
내부	이수진, 방영민, 최기식 장로	최기식, 박재천 장로, 함재봉 집사(함태영 목사 손자)



게일문화상 수상자: (사)필레마 필름포럼



(사)필레마(대표 우창록)는 2003년 서울기독교영화축제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2011년 (사)서울국제기독교영화제를 설립하고 이듬해 4월 비영리 문화법인으로 필름포럼을 인수한 후 법인명을 (사)필레마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기독교 문화선교를 하고 있는 단체다. 한국 교회를 섬기며 문화를 통해 소금과 빛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섬기고 있다. 필름포럼(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527 소재)은 비기독교인들과의 지속적인 선교적 만남과 기독교인들에게 온전한 복음의 문화 모델 제시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는 기독교 복합문화공간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1. 기독교 영화, 예술영화 상영 및 시네토크, 2. 갤러리와 카페 운영 및 영화관·세미나실·카페 대관과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3. 필름포럼 아카데미 개최와 기독교 예술인 양육, 4. 서울국제사랑영화제 매년 개최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 소감>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가지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연동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식에 와서 수상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 기독교 영화제를 21년간 끌어오면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연동교회에서 우리를 알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올해 22회째 열린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운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촌에 위치한 필름포럼이라는 소극장 운영입니다. 거기에서는 기독교 영화와 일부 예술영화를 상영합니다. 교회가 요청하면 좋은 영화를 가지고 찾아가서 상영해 드리는 찾아가는 영화관도 운영하는데, 연동교회를 위해서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 드리며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평>

'기독교 문화 창달'과 '세상 문화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가지가 주된 심사 관점이었습니다. (사)필레마 필름포럼은 심사 대상자 중 가장 오랜 기간 지속적이고 창의적이며 양질의 활동을 감당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영화를 통한 기독교 가치 확산에 중심적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으며, 복합문화공간인 '필름포럼'은 21세기 한류의 중심인 서울에서 기독교문화를 향유하고 확산시키는 베이스 캠프이자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져 게일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송암봉사상 수상자: 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예방센터(대표 조성돈, 서울 영등포구 도산로 19길 5 소재)는 한국사회의 자살예방과 생명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이 땅에 상처 입고 소외된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섬기고, 이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가치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1. 교육 사업: 자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줄 프로그램 개발, 자살예방을 위한 교회와 교인들 교육 및 감사 양성, 2. 연구 활동: 자살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이끌고, 동시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연구와 예방 프로그램 개발, 3. 상담 사역: 자살 위험자들과 예비자 및 상처 입은 공동체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돌봄 사역, 4. 예배 사역: 유가족 예배를 통해 유가족들의 치유에 도움 역할 등을 주로 하고 있다.

<수상 소감>

우리 단체는 기독교를 배경으로 자살 예방 활동을 펼쳐왔지만 그동안 교회는 저희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살이라는 주제 자체가 한국교회에 불편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회에서 많은 일을 펼쳐왔습니다. 자체 개발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생명권 및 기초 교육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송암 함태영 목사님의 이름을 건 상을 교회에서 받게 되어 기쁩니다. 사회와 교회를 넘나들며 한국교회와 민족을 이끌어주셨던 송암 선생님의 삶 속에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사회와 교회를 넘나들고 있는 저희의 활동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저희에게 이러한 상을 주신 이유가 그런 취지에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의 가는 길이 그 동안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의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동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평>

라이프호프의 그간의 활동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절실한 과제에 응답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송암 함태영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라이프호프는 지난 12년 동안 본격적으로 자살 예방과 생명 문화 확산을 주도해오며 아픈 사회를 치유하는 체계적인 노력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의의를 넘어 앞으로 다양한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교회의 공공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희망찬 사역의 주역이 되기를 기대하며, 송암봉사상 수상자로 선정합니다.



LifeHope Mission



상담사역 (돌봄과 나눔)



교육사역 (교육과 연합)



연구사역 (연구와 교류)



예배사역 (유가족 예배)

‘130인 엮음 성경필사’ 헌정

성경필사본 헌정에 오기까지 숨은 이야기들

2월 4일(주일)부터 18일(주일)까지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데바레가 성경필사자를 모집하여 3월 10일(주일) 발대식에 814명이 신청, 최종 688명(대필중복 제외)이 교구별로 한 권씩, 총 5권의 성경필사본을 만들었다.

오타, 누락 및 띄어쓰기도 감수로 반출되니 여러 번 다시 쓰고 다시 쓰다가 중간에 분량을 줄여보기도 하고 결국 포기하는 성도들이 속출했다. 박연숙 집사(안국평창구역)는 교구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필사했고, 이동진 공로안수집사(고양구역)와 심현숙 장로(안국평창구역) 역시 교구에서 많은 분량을 쓰고, 대필도 했다. 그 외에도 성도 여럿이 많은 분량의 필사와 대필을 감당해 주어 5권의 성경필사본이 기한 내에 무사히 완성될 수 있었다.

제본은 10월 7일(월)부터 18일(금)까지 제본사 오버플로우에서 진행되었으며, 10월 19일 교회창립기념주일 헌정식 후 10월 27일(주일) 교회마당에서 전교인에게 성경필사본 열람을 실시했다. 11월부터 1교구를 시작으로 한 달 간격으로 본당 강단에 다섯 구역의 성경필사본을 차례로 올려놓기로 했으며, 펼쳐 놓는 성경 페이지는 매 주일 오늘의 말씀에 맞추기로 했다.

최연소 참여자는 5세 박시준 어린이(박인천, 임운선 집사 아들/쌍성연동5구역)이고, 최고 연장자는 96세 송경복 은퇴 집사(길음구역)와 남예희 명예권사(제기청랑리회기구역)이다. 온 가족이 필사한 박요한 목사, 최현수 장로 가정은 가족 전원(5명)이 참여하여 가장 많이 참여한 가정이 되었다. 최영익 장로(분당구역) 가정은 부인 전영혜 권사, 딸 최동민 집사와 최동하 성도, 사위 유진오 집사와 윤병익 성도, 외손자 유하준, 이준 어린이 등 3대에 걸쳐 8명 모두가 참여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김소영 성도(김윤환 공로안수집사, 윤현숙 공로권사 딸/마포용산구역), 부산에 거주하는 김향은 집사(월계구역)도 필사에 참여했다.

7월 한 달은 매주 수요일 드보라의 방에서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오픈 클래스를 진행해 평균 3-5명 참여하였고, 그





자리에서 감수도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성도들도 있었다.

감수팀은 401호에 감수실을 꾸리고 3월 17일(주일)부터 1차 감수를 시작해 매 주일과 평일 낮에 감수를 진행했고, 8월 22일(목)부터 3주 동안은 원활한 마감을 위해 화요일과 목요일에 한해 밤 11시까지 야근하며 강행군을 펼쳤다. 감수과정이 까다롭다고 하신 성도들도 ‘오류 없음’ 확인 문자를 합격 문자라 하시며 기뻐하셨고, 감수로 고생한다며 간식을 준비해 오신 분, 식사라도 하라며 금일봉을 건네주신 분, 점심 한 끼 맛나게 준비해 주신 권사님들도 계셔서 감동이었고 감사한 마음에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다. 이에 감수팀은 10월 19일(주일) 헌정식 당일, 감사한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을 준비해 필사자 전원에게 드렸다.

성경필사본 헌정 교구별 대표자

1교구 필사본은 130주년 준비위원회 대내분과위원장인 이수진 장로가 헌정했다.

2교구 필사본은 4대가 함께 참여한 남예회 명예권사(제기청량리회기구역) 가정에서 맡았다. 아들 박종서 장로, 며느리 정영희 권사, 딸 박혜란 집사와 박영란 집사, 손녀 박지인 집사, 증손자 이준 어린이가 필사에 참여했다.

3교구 필사본은 몸이 불편한 가운데 여러 차례의 오류를 지적받으면서도 오히려 필사에서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한 이동현 집사(연지구역)가 헌정했다.

4교구 필사본은 필사가 진행되는 도중 분량의 조정 등으로 대필이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가장 많은 분량을 담당해준 이동진 공로안수집사(고양구역)가 헌정했다.

5교구 필사본은 중국어예배반의 중국인 성도들도 필사에 동참하였는데 그들의 어려움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누어 부담해 주신 박금화 집사(과천안산구역)가 헌정했다.



성경필사를 마친 소감



정인용 은퇴장로
(은평구역)

자꾸 몸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서둘러 20장을 제출했는데 19장이 되짜라니... 부끄럽고 창피하고 앞이 캄캄했다. 5월 27일에 입원, 수술 후 재활병원에서 환우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병상 식탁에서 써 내려가는 필사는 감동이었다. 비록 과정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치유의 하나님을 만났고, 필사를 통해 모든 연동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욱 깊이 소통하며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도한다.



주성경 청년
(경인구역)

언제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하며 온전히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지 되돌아보면서 한 글자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틀릴 때마다 그만둘까 하는 시험에 들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다시 써 내려가다 보니 어느새 완성된 성경필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필사였지만 끝까지 해내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뜻깊은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성우3 집사
(쌍성연동3구역)

수정액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칙 때문에 필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았나 싶다. 신청서를 받을 때도 이런 안내는 없었고 각자 써야 할 분량이 정해지고 나서 이러한 규칙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할당받은 분량이 너무 많았다. 은혜를 받자는 의도는 사라지고, 틀리지 않고 써야 한다는 형식만 남은 모습이 마치 초대교회에서 할례를 강요하는 모습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내가 그동안 읽기만 할 때는 몰랐던 성경 속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은혜를 누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틀리면 다시 써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썼다. 아이들에게 교회의 능력보다 형식을 갖추는 일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염려되기도 했다.



최영익 장로
(감수팀 총괄)

교회창립 130주년이 되는 올해는 정말 한 가지에 집중하는 한해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연 초부터 시작해 필사 참가자를 모으고 개인별로 필사 담당 분량을 나누고 3월 10일 발대식을 가질 때까지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정말 어려웠던 시간은 기나긴 감수의 시간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오류 없는 성경 필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하며 감수 기준이 너무 지나치다는 여러 차례의 불평에도 처음 정한 원칙을 큰 변동 없이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수를 하는 동안 단번에 감수를 통과하신 분들에 대한 감탄과 10여 차례의 반출과 재감수를 감내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동 등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마감이 임박하여 많은 분량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는 시간 내 마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지만 아군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감수 팀원들이 있어 정해진 시간에 마칠 수 있었고 스토리가 있는 헌정식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 필사와 감수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은 인도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한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애



10월 16일(수)부터 18일(금)까지 3일 동안 저녁 7시 30분부터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주제로, 창립 130주년 맞이 말씀사경회를 열었다.

첫째 날, 16일(수)은 트리니티 밴드의 찬양과 구자학 장로의 기도, 김선희1 권사의 성경 봉독(마 3:13-17), 연못골찬양대의 '주께 경배하리(M. RYAN 곡, 차영희 역)' 찬양 후 조정민 목사가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되나?'로 설교하였다.

둘째 날, 17일(목)은 연합찬양선교단의 찬양과 이수진 장로의 기도, 정숙희 권사의 성경 봉독(막 1:35-39), 부용찬양대의 '오 놀라운 구세주(최정연 편곡)' 찬양 후 조정민 목사가 '공생애는 어떻게 지속하나?'로 설교하였다.

셋째 날, 18일(금)은 연합찬양선교단의 찬양과 방영민 장로의 기도, 박혜영 권사의 성경 봉독(요 17:1-11), 게일찬양대의 '천번을 불러도(이권희 곡)' 찬양 후 조정민 목사가 '공생애는 어떻게 매듭짓나?'로 설교하였다.

사경회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공생애 삶이란 공동체를 위한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치열한 몸부림임을 배웠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매일 성경을 읽는 것, 즉 성경통독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스도인의 공생애 매듭짓기는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 길 위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다. '나는 진정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기획 및 기사 작성 : 고현수, 박동진, 주태성 기자





성 마태의 소명(1600년경)



의심하는 성 토마스(1601년경)



엠마오의 저녁식사(1606년작)

첫째 날, '공생애는 어떻게 시작되나?'(마 3:13~17)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시작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공적인 섬김과 헌신으로 전환하여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이는 남녀 간의 사랑(에로스), 우정(필레오), 가족애(스토르게)와 다르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명령하신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내적 기쁨을 누렸으며, 이는 고난 속에서도 지속되는 신앙의 힘 때문이다. 교회는 외형적인 업적보다 사랑과 기쁨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하며, 연동교회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해 온 것을 축복하며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도한다.

둘째 날, '공생애는 어떻게 지속하나?'(막 1:35~39)

기독교인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공생애(공동체적 삶)를 살아야 한다고 설파한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공생애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지속된다. 신앙생활이 단순히 예배 참석이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여 예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인간적인 상처나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예수님의 삶과 공생애를 따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길이라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결론 짓는다.

셋째 날, '공생애는 어떻게 매듭짓나?'(요 17:1~11)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욕망에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도록 권면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며,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을 알기 위한 것이다. 십자가의 길은 단순한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표현이며,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신앙의 본질적 과제이다. 참된 신앙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완결되며, 이를 통해 하나됨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

<교인들 소감>

이수진 집사(쌍성연동4구역)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대해 묵상해보지 않았는데 이번 사경회 말씀을 통해 내 삶의 기본, 신앙의 기초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공생애의 시작은 사랑과 기쁨,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유지하고, 마무리는 십자가라니 얽힌 실타래를 푼 명쾌한 대답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면서 이것이 내가 나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주변에 실천해야 할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는 사실,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다. 기도보다 말씀이 먼저라고. 하지만 명쾌하게 나에게 와 닿지 않았었다.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그것이 살아 움직이면 주님은 일하신다.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며 시작하자.

이은영 집사(쌍성연동10구역)

신앙사경회를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 예수님께서서 헌신과 사랑으로 사람들과 함께하신 것처럼 나 역시, 나의 삶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갖추고 싶다는 다짐을 했다. 일상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김형기 안수집사(화양자양구역)

예수님께서 내 삶에 내려주신 사랑을 받기만 했던 나에게, 이제는 이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해야 한다는 깊은 도전과 영감을 안겨 주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랑과 희생, 겸손과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더욱 간절해졌다.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특히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그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다.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기회를 놓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함을 깨달았다. 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고 싶다. 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쉽지 않겠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경회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지속해 가길 소망해 본다.

이정민 장로(연희홍제구역) - 나의 삶이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이 되기를 -

교회가 그 빛을 잃고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자조의 말을 많이 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원인은 늘 나 아닌 외부로 돌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나의 삶 속에 또는 교회 속에서의 열심 속에 나는 어떤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있나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말씀보다 오히려 인문학적 방법론이나 사회학적 통계론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하나님 일에 열심하고 있노라 하면서 삶 속에는 감사보다는 낙심과 자기연민과 이기적인 반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삶이 빠른 길이 아닌 바른 길을 따라 갈 수 있기를, 또한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와 동행하는 공생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마커스워십 초청 집회와 중고등부 연합 야외예배



안민영 성도
(중등부)

10월 5일(토), 대예배당 1층에서 중등부 찬양팀과 함께 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유튜브에서만 보던 마커스워십팀을 연동교회에서 직접 보게 되어 신기했습니다. 중등부에서 자주 찬양했던 곡을 찬양하고 연주하는 마커스워십팀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평소 드럼 연주를 위해 음악에만 집중하다가 화면의 가사를 보며 찬양하니 곡들의 의미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첫 곡인 '한나의 노래'를 찬양하며 한나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신나는 찬양들은 이미 중등부에서 찬양했던 곡들이었기에 약기 연주자들의 연주를 자세히 보고, 인도자가 어떻게 연주자들과 소통하는지를 마커스워십팀을 보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중등부에서 드럼으로 찬양해야 했기 때문에 마커스워십팀과 실력 차이가 드러날까봐 부담이 되었지만, 그래도 부담대신 평소처럼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찬양팀과 찬양하였습니다. 이번 130주년 기념행사를 경험하며 10년 뒤, 140주년에는 어떻게 기념하게 될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커스워십처럼 최고의 찬양팀을 초청하여 기념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140주년을 기념할 때에는 우리 선생님들처럼 좋은 연주자들이 힘을 모아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참신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서 기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월 26~27일(토~주일) 곤지암 팀업 캠퍼스, 중고등부 연합 야외예배에 일찍 참여했습니다. 중등부 친구들과 김밥을 먹으며 혼자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반, 재미있겠다는 기대 반인 마음으로 교회 버스를 탔습니다. 첫 순서, 신발 멀리 날리기를 하며 고등부 선배들과 어색함이 풀렸고, 다음 활동인 단체로 홀라후프 통과하기와 등글게 손잡고 공물기를 하며 더 친해졌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계주는 코끼리 코를 10바퀴 돌고 뛰거나, 오리발을 신고 뛰는 등 특별한 계주였습니다. 저는 코끼리 코를 10바퀴 돌고 계주를 하였는데, 서로 어지러운 상태로 뛰게 되니 같이 뛰던 동생과 부딪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글램핑장에서 기념촬영 후 저녁 바비큐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대신해 김나연 선생님께서 고기를 열심히 구워주셨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고기를 다 먹고 '비긴어이쿠'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비긴어이쿠는 청년 선생님들이 부르시는 찬양과 가요를 들으며 힐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추워서 모두 담요를 덮으면서도 남운태 선생님과 민다는 선생님, 성유정 선생님께서 부르시는 찬양과 노래를 함께 듣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앵콜로 신청곡을 받아서 불러주셨는데 청년 선생님들께서 추억의 노래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싶었지만 다친 손 때문에 박수를 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글램핑장 전체가 우리의 콘서트장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번 야외예배는 선생님들께서 평소보다 학생들을 더 신경쓰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추운 날에도 학생을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친해지지 못했던 많은 선생님, 선배들과 이번 야외예배를 통해 친해지게 되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중고등부 연합 야외예배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저는 2019년 연동교회에 처음 와서, 김윤기 목사님께서 청년부에 부임하시게 된 2023년에는 셀리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셀리더의 자리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섬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좋은 기억들이 많았지만, 다른 자리에서 청년부를 위해 섬겨보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윤경희 성도
(비청년부)

그러던 작년 말, 리더 모임을 마친 후 목사님과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카페에서 2024년 청년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목사님께서 셀리더와 셀을 지원하는 '셀지원팀' 신설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직장에서 사업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포트하는 지원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저의 달란트와 성향에 가장 적합한 자리를 준비하셨다는 확신이 들어 섬김을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셀지원팀은 팀장, 회계, 총무, 서기 각 1명씩 총 4명으로 구성되어, 하이청년부 회장단 포함 15개 셀과 그 셀을 섬기는 25명의 리더, 부리더들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셀별 출석부 배부를 통한 셀모임 참석 현황 파악과 기도제목 취합, 토요일 리더모임 주관, 분기별 예배당 자리 배치 및 다양한 교제를 위한 셀지원금 배분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매 주일 모든 셀모임이 끝나기까지 자리를 지키고, 여러 변화를 겪는 셀을 위해 선한 방향성을 고민하며 지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리더들의 많은 고민과 노력, 셀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고 또 다른 한 해의 시작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에 있는 지금, 사랑과 진정으로 서로 위하고 섬길 청년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늘 함께 해준 고마운 동역자인 팀원들(한준형, 김애린, 서유니 청년)과 셀지원팀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불평불만에서 감사로 옮겨준 성경필사



서유니 성도
(H청년부)

처음 데바레카 성경필사를 신청할 때만 해도 마음이 그리 무겁지 않았습니다. 주변 언니, 오빠들도 한다고 하고, 130주년 기념행사이기도 하니 ‘한번 해보지 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 분량을 배정받고, 구체적인 필사 방법을 듣고 나서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작성 기준에 부담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필사를 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처럼 나지 않는 속도, 자꾸만 고장이 나는 볼펜, 끊임없이 등장하는 어려운 이름들에 포기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잘 해내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에 화가 나고 답답하기도 했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혹시 성경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기쁨보다는 불평불만이 더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최종 검수 완료 문자를 받고 난 이후 끝났다는 뿌듯함, 안도감과 함께 감사의 마음이 마구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성경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감사팀으로 섬겨주신 장년분들의 수고와 인내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필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 텐데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했습니다. 연동교회에 온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제가 창립 13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며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더욱 키워갈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습니다. 혼자였다면 해낼 수 없었을 것 같은데, 함께 힘을 나누며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준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렇듯 최종적인 필사에 대한 저의 한 줄 소감은 “하길 잘했다” 입니다. 필사의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고 어렵긴 했지만, 끝나고서 돌아보니 감사할 일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감사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필사와 함께 다시 만난 마르틴 루터와 찬송가

처음에 필사에 대한 광고를 듣고 참여에 고민을 하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할 수 있을까 어렵지는 않을까 나는 약필인데.... 하는 고민과 예배를 섬기는 반주자인데 당연히 해야지 하며 잠시 고민하던 차나, 필사 신청 테이블을 지나가는 저를 붙잡고 “하실 거죠?”라고 권유해주신(아마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마음을 굳히도록 해주신...?) 집사님이 계셔서 필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은 있었으나 우연히 참여하게 된 저의 필사는 원했던 부분과는 다른 부분을 배정받으면서, 아직 마감까지는 한참 남았으니 천천히 해야겠다. 나중에 서둘러서 하면 되지 뭐 하는 생각으로 한동안 미뤄놓고 잊고 있었습니다. 배정받은 성경 부분은 누가복음의 5장이었습니다. 제철 마감일이 점차 다가오며 슬슬 다가오는 압박에 필사를 시작하였고, 대학시절 마음 먹고 성경통독에 참여한 적이 있던 터라 살짝 내용이 떠오르며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며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필사에 참여하셨던 성도님들 모두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아차 하는 순간에 어렵게 써내려온 뒷장 절반 이상은 물론 앞장까지 다시 써야 하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자신을 원망하며 몇 차례 울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신기루 집사
(연회홍제구역)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묶는다는 생각까지 하며 누가 썼을까? 이러한 내용과 단어가 있었네? 다른 부분도 다시 읽어봐야겠다 등 성경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하다 보니 이쯤 되면 이렇게 성경필사를 하고 있는 내가 복음이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건 필사에 참여하며 오랜 세월을 거쳐 온 성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분량의 성경을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다 손으로 써서 옮겼을 텐데 전체를 다 쓰려면 쉬운 일이 아니었겠구나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일부 가톨릭 성직자들만 볼 수 있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 마르틴 루터를 떠올렸습니다. 예배에 연주되는 오르간의 곡들은 성경과 찬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학원에서 졸업 시 마르틴 루터를 연구하여 루터의 코랄(독일찬송)을 가진 오르간 소나타 주제로 학위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루터는 성경 번역 이외에도 모든 회중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독일어로 된 찬송가를 출판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에 근거해 작사한 많은 찬송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독일어 원문(루터 출판)

외에 작사, 작곡한 8곡의 찬송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여덟 곡의 찬송 중 가장 유명한 곡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종교개혁기념주일과 연동교회 130주년, 추수감사절과 성탄을 거치며, 루터가 남긴 찬송을 성도님들과 함께 느껴 보고 싶습니다.

연동교회 130주년 기념 "성경필사의 은혜"



오정애 공로권사
(일산구역)

2024년 3월 10일 나는 오후 예배와 발대식 참여 후 성경필사 위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집에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필사 위해 준비된 책상에 앉아 주의사항을 다시 읽고 신앙고백과 내가 정한 하루 분량, 전도서 1장 1절에서 15절을 정독 후 나는 성경필사에 들어갔다.

시작부터 긴장되고 조심스런 나의 손 떨림은 심상치 않았다.

반 장도 못 쓴 필사 앞에서 훼손지가 쌓여 갈 때 내 안에 흰색 수정 펜 유혹이 나를 흔들었고, 잘못 출고된 볼펜의 불편함도 한몫을 했다.

80년 긴 세월을 길들여진 발음과 받침 중 바른 자음 선택과 띄어쓰기 혼돈은 나의 필사 앞에 많은 걸림돌이 되었다.

필사 때에는 점심도 아까운 시간, 급히 얹은 내 손가락 지문이 살짝 오염될 줄이야! 이러한 상황 속에 Returned 세 번의 내 필사지 안에는 감수원들의 돋보기식 관찰과 사랑의 조언 Tape가 몇 개씩 붙어 있었지만 나는 짜증과 Stress보다는 나를 향한 따스한 손길의 은혜를 느끼면서.....

"오 권사야 삶 속에 깨닫고 실천하는 너를, 믿고 인정하기에 네가 할 수 있는 더 이상을 내가 이루게 하려고 다시 돌아왔단다."

2년 전 서원 작정 1/2이 곧 신탁 만기되면서 전도서 5장 4절 말씀은 서원의 참 뜻을 깨닫게 하였고 감사와 은혜로 봉헌하게 인도해주셨다.

지금도 200여 장의 훼손된 필사지들은 용기와 인내의 흔적으로 내 곁에 보관되어 있고 한 자 한 자 은혜로 수놓아진 나의 성경필사는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1절에서 12장 14절이었다.

6월 하순경 네 번째 "오 권사님, 성경필사 Pass 합격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완성된 나의 필사 소식은, 감사와 은혜의 눈물이었다.

성경필사하며 받은 은혜

집사람의 암묵적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성경 필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 신청을 하기는 해놓고도 회사가 바빠서 퇴근도 늦게 하는데 필사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고민이 많았다. 평소에 성경필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는 않았다. 필사를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 속에 자주 성경 말씀을 읽고 그해야 하는데 성경 완독에 들어갔다가 중간에 그만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쉽게 마음을 먹을 수 없었다. 집사람 강요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했지만 이번 기회에 성경도 꾸준히 읽고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보자는 마음으로 매일 매일 한 편씩 쓰려고 노력했고 한번 결정하면 끝내야만 하는 성격이어서 마음을 잡고 쓸 수 있게 되었고 성경 필사를 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졌다.



황석상 안수집사
(고양구역)

주어진 히브리서 필사를 완성하고 감수팀에 넘기면서 자신만만하게 기다렸다. 그런데 각장에 한 부분씩 오자가 지적되었고 빠트린 부분까지 생겨서 퇴짜를 맞았다. 다시 두 번째 전장을 필사 후 감수에 넘겼는데 또 퇴짜. 두 번째 퇴짜를 맞고 나니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까다로운 감수팀에게도 화가 나서 순간 시험에 들 정도로 쓰기가 싫었다. 그런데 나보다 더 많이 퇴짜를 맞고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마음을 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앞에 썼던 필사본을 모두 폐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쓰는 방법을 바꿨다. 집사람이 성경을 단락단락 불러주고 나는 불러주는 말씀을 성경책을 한번 더 보면서 받침, 띄어쓰기를 확인하고 받아쓰기 하는 방식으로 필사를 했다. 결과는 성공, 감수를 통과했다.

이번에 성경 필사를 하면서 히브리서를 외울 정도로 많이 틀리고 다시 쓰면서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부분도 많았고 은혜받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집사람과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성경을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다.

성경을 읽고, 쓰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게 되었다.

2024년을 보내며 2025년을 준비한 하이청년들

I 고등부, 청년부 연합 풋살 친교



9월 18일(수) 중랑 물재생센터 풋살장에서 청년부와 고등부가 연합하여 풋살 친교가 이루어졌다. 많은 청년부원들과 고등부 학생들이 참석하여 운동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목을 다졌다. 풋살에 참여하는 인원 외에도 청년부원들이 함께하여 응원하고 음료를 나누며 더욱 풍성한 모임이 되었다.

I 러브릿지 온(溫)



가까운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러브릿지온 봉사활동이 9월 28일(토), 10월 26일(토)에도 무사히 진행되었다. 창신동 쪽방촌 곳곳의 이웃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는 봉사활동으로 연동교회 청년부원들의 꾸준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마지막까지 이웃들에게 따스함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I 세념시말 특강: 지향이 있는 투자(강사 이덕준 집사)



3월과 6월에 이어 10월 13일(주일), 세대를 넘어 시대를 말하다(세념시말)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번 특강은 이덕준 집사께서 “지향이 있는 투자”라는 주제로 준비해주셨다. 특강은 청년부 예배 직후인 2시 45분부터 베들레헴예배실에서 진행되었고,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투자에 대해 설명해주시며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고등부 수능 및 졸업선물 전달



11월 3일(주일)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응원과 위로를 전하고 자 HI청년부 임원단이 고등부 예배 직후 광고시간에 방문하여 선물을 전달하고 함께 기도했다. 1년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 2025년도 회장, 부회장 선출

11월 3일 주일예배 직후 2025년 HI청년부를 섬길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와 정기총회가 진행되었다. 총회 전 주에 후보자 투표를 진행하고 세워진 6명의 후보를 두고 선거가 이루어졌다. 회장은 김민성 청년, 부회장은 성유정 청년이 세워졌다. 2025년에 예정된 청년부 공동체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바란다.



| 청년부 풋살 친교



10월 3일(목), 11월 3일(주일) 서경대 풋살파크에서 청년부 풋살팀 모임이 이루어졌다. 여러 청년부원들이 참석하여 풋살 경기를 하며 친목을 다졌다. 특별히 11월 3일에는 여성 청년부원들 또한 풋살에 참여하여 운동을 배우고 서로 경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 청년부 고기 파티



11월 10일 주일예배 직후 130주년 페스타로 수고한 청년들을 위해 교회 마당에서 고기 파티가 열렸다. 김주용, 김윤기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과 장로님, 권사님들이 수고하여 굶고 준비해주신 고기와 간식을 먹으며 셀원들과 함께 자유롭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정글북 & 와일드 로봇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호세아 13:5)



호기심 가득한 어린 시절, 디즈니 애니메이션 <정글북> 비디오테이프가 집에 있었던 기억이 난다. <피터 팬>과 함께 내가 가장 즐겨보던 영화라고 한껏 자랑하고 싶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티니핑과 헤이지니가 있다면, 나에게서는 모글리와 피터가 있었다. 비디오를 얼마나 많이 돌려보았는지 테이프가 너덜너덜해졌고, 요즘에도 가끔 그때 들었던 OST 삽입곡들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릴 때가 있다. 삼십 년 이상이 지났는데 말이다. 어렸을 때 보고 듣는 것이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말은 사실인 것 같다.

정글북 이야기는 두말할 것 없이 정글에서 시작한다. 부모를 잃고 야생에 버려진 모글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흙 표범 바기라가 어디선가 나타나 아이를 늑대 가족에게 맡긴다. 덕분에 모글리는 생존하고 동물들의 보호를 받으며 정글에서 성장한다. 모글리에게는 정글이 집이고 동물들이 가족들인 것이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 인간에게 적대적인 호랑이 쉬어 칸이 정글로 돌아오고, 그가 두려운 늑대들은 모글리를 인간들이 사는 마을로 돌려보내기로 한다. 물론 모글리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모글리는 인간들이 사는 마을 어귀까지 도달하게 되고,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여자아이를 보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따라간다. 그렇게 마을로 사라지는 두 소년 소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지켜준 바기라와 친진난만한 곰 발루는 시원섭섭한 표정을 짓는다. 영화는 그렇게 막을 내린다.

모글리는 과연 인간들이 사는 마을에서 잘 적응했을까? 아니면 다시 정글로 돌아갔을까? 그 다음 이야기가 늘 궁금했었다. 아마도 모글리는 정글에서의 삶을 잊지 못하고 마을과 정글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하며.

그런데 최근, 잠시 잊고 살았던 정글북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한 영화가 있었다. 바로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며 어린이들의



김윤기 목사

동심을 자극하는 <와일드 로봇>이라는 영화이다. “인간” 모글리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정글이 “인간이 만든” 로봇을 맞이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야 할까. 인간과 함께 어우러진 야생의 모습을 보고 자란 나로서는 로봇과 함께 어우러진 야생의 모습이 흥미로울 수밖에 없었다.

<와일드 로봇>의 원작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이자 아마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어린이 문학의 거장 피터 브라운의 소설이다. 소설도 불티나게 팔렸지만, 영화도 만만찮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휴일이 되자마자 첫째 딸의 손을 잡고 극장으로 향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로봇 로즈는 인간과 가정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인간형 로봇 로즈 유닛 7134로 사고를 당해 거대한 야생에 불시착한다. 로즈는 주변 동물들의 행동을 배우며 낯선 환경에 적응해 가던 중, 자신과 비슷하게 사고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새끼 기러기 브라이트빌을 만나 그의 보호자, 아니 엄마가 되어간다. 모글리가 정글에서 다양한 동물들과 교감하며 성장하듯 로즈도 야생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프로그래밍 된 자신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관람 후 딸에게 물었다.

“영화 어땠어?”

“너무 재밌었어.”

“로봇에게 정말 마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응.”

“왜 그렇게 생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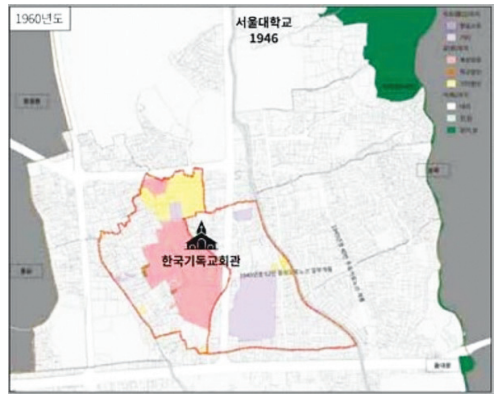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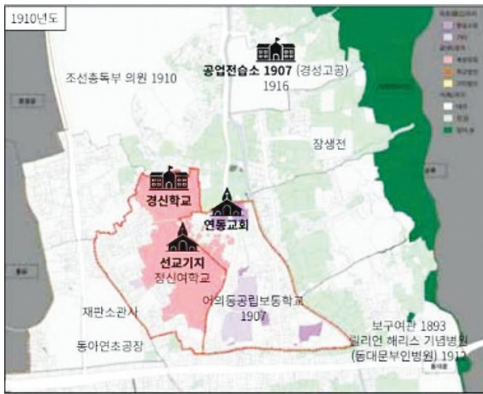
“그냥 그럴 거 같아.”

어느덧 부모가 되어버린 우리 세대는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걸 목격했다. 그렇다면 인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로봇이라면 어떨까.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주도적으로 살아갈 머지않은 미래에는 로봇이라는 존재가 세상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펼쳐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인간은 로봇에게 마음을 “넣어줄” 수는 없다. 하지만 로봇에게 마음을 “줄” 세대는 이미 우리 앞에 도달했다.

여담이지만, 모글리에게는 정글이, 로즈에게는 야생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광야가 펼쳐져 있다. 그리 나쁜 조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광야를 지나야만 깨달아지는 것이 있기에.

연동의 이웃 풍경

130년의 시간 동안 연동의 이웃 풍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초가집에서 고층건물로 말과 전차가 다니던 길에서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되었다. 그간 연동의 이웃 풍경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 오수희 기자 (사진출처 연지효제:새문화의 언덕, 서울역사박물관)



연지.효제 지역 변화 과정

●주변 교육기관의 변화

연동교회 주변에는 기독교인 정신여학교(1895)와 경신학교(1901), 기술학교인 공업전습소(1906)를 포함하는 여러 교육 기관이 있었다. 현재 정신여학교와 경신학교는 잠실과 해화로 각각 이주하였고 경신학교 부지에는 현대그룹 빌딩이 들어서 있다. 공업전습소 부근은 방송통신대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연동교회 건너편의 효제초등학교(1895)는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학로 주변의 변화

대학로 주변은 빨터로 사용되던 대학천(홍덕동천) 복개공사 이후 크게 정비된 모습을 보였다. 대학로 건너편에 있던 조선총독부의원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바뀌었으며 1975년 마로니에 공원이 들어서고 상업지대로 빠르게 변화하였다.

●선교기지의 변화

연동교회를 시발점으로 연지동 구릉지 일대에 대규모의 선교기지가 조성되었다. 1900년 초반 선교사 주택이 설립되면서 선교사촌이 설립되었고 선교사의 언덕으로 불리었다. 1940년 북장로회 선교사들이 모두 강제 출국 당하면서 이후 선교기지는 해산되었다. 현재 한국기독교회관, 기독교연합회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등 기독교 및 선교 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이웃의 직업

1896년~1911년 연동교회 세례교인 546명 중 직업이 확인된 160명의 직업은 학생과 교사가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회관련 직업은 35명, 예수신문사 등 기독교 관련 업종은 4명이었다. 상업종사자는 42명이었는데 도배공, 목수, 시계공, 봉제사 등 매우 다양했으며 특히 양혜공(신발 만드는 사람)이 10명으로 상당히 많았다. 학생을 제외하면 초기 연동교회 교인은 지식인과 상인층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1946년 경성효제공립국민학교 1학년 1반 69명 학생의 현황 조사에 따르면 보호자 직업은 상업 41명, 회사·은행원 9명, 관청 5명, 공장 4명, 농업 1명 등으로 상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가옥상황은 기와집이 68명이었고 생활상태는 42명은 보통, 26명은 부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오수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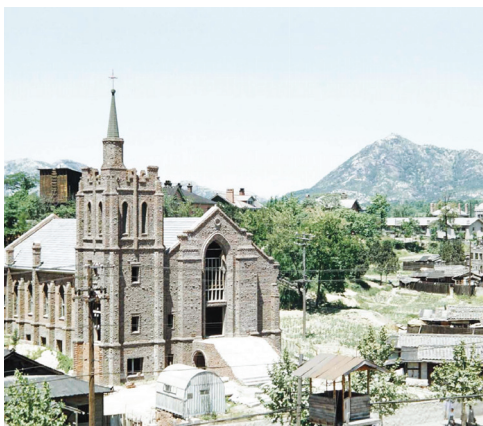
1910년대 연지동과 선교사의 언덕



1910년대 대학로



1950년대 대학로



1950년대 연동교회와 주변풍경



선교기지 자리에 위치한 한국기독교교회관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사진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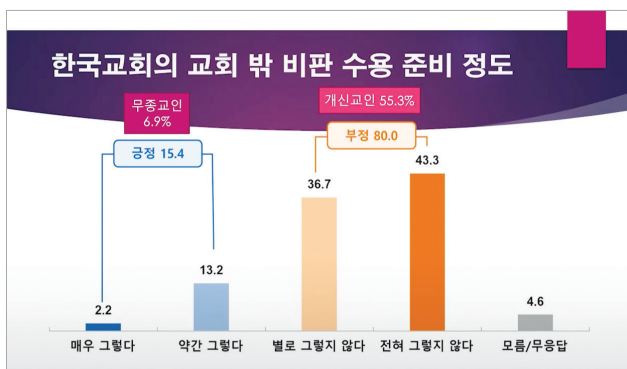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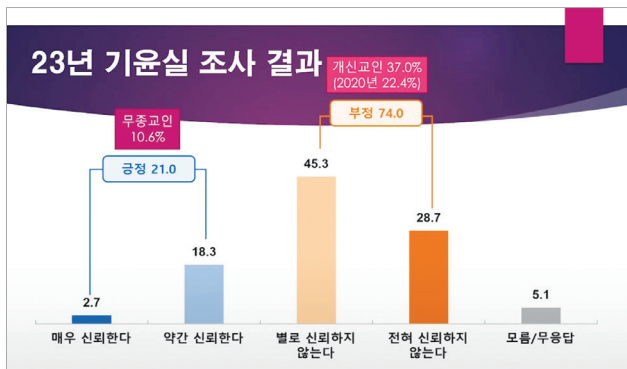


경신학교 자리에 위치한 현대 그룹

선교 : 사회선교와 퍼블릭 처치(Public Church)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연속기획포럼 “교회개혁과 한국교회 트렌드”의 세 번째 부문은 “선교”로, ‘사회선교와 퍼블릭 처치’를 주제로 열렸다.(첫 번째 주제 “신앙”은 연못골 6-7월호 22p, 두 번째 주제 “교회”는 연못골 8-9월호 26p 참고)

첫번째 발제는 『교회 바로세우기를 통한 사회개혁』으로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 박득훈 고문이 발표하였다. 미국의 기독교역사학자 야로슬라프 펠리컨은 “전통은 죽은 사람들의 살아 있는 신앙인 반면, 전통주의는 살아 있는 사람들의 죽은 신앙이다”라고 하였다. 전통이란 물려받은 비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깨달은 바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반면 전통주의는 아무런 성찰 없이 남겨진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물량주의적, 기복적, 이원론적 신앙에 깊이 빠져 있지만, 교회개혁을 위한 노력을 주류 한국교회 대다수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워 개혁연대가 출발한 동기였다. 이원론적 신앙은 소위 정교분리 원칙을 오랫동안 왜곡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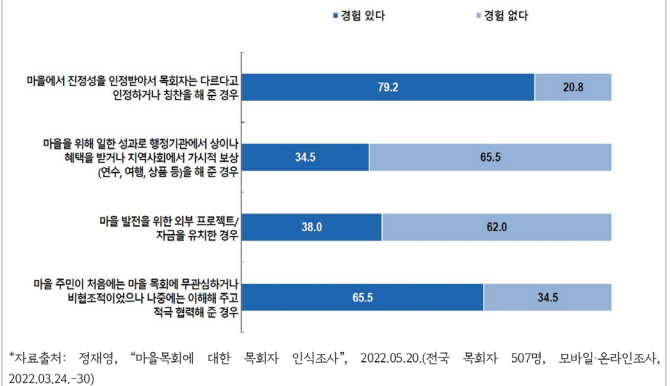
주류 한국교회 대다수 역시 정교분리 원칙을 휘둘러 1970-80년대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저항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맹렬하게 비판했고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은 소위 대통령 혹은 국가 조찬기도회 그리고 성명서를 통해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정치참여를 해 왔던 것이다. 종교행위를 가장한 정치참여이기에 비겁하기 이를 데 없다. IMF관리 체제를 수용한 이후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정책인 무역자유화, 민영화-탈규제화-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받아들였고 자본 세력이 지배하는 시장만능주의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또한 오랫동안 전혀 속수무책이었다. 이제는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류 교계의 타락한 정치참여를 바로 고쳐나가야 하고, 무기력하게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들을 바로 세워 정의로운 사회개혁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신학적 성경적 근거는 주

로 교회개혁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 알려왔고, 그 요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정의·평화·생명을 이 땅에 실현해가는 사회 참여를 몸소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신앙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민주화 이전에 기독교 유지에만 노력하던 이들 사이에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새로운 정치참여의 길을 모색하며 한기총을 중심으로 하는 교계내 인사들이 친미·친자본·반북노선의 이념을 들고 보수정치를 응원하는 시민운동을 펼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올바른 비판은 보편적 양심과 공적 이성, 신앙적·신학적 성찰과 실천 그리고 사회과학적 이해를 아우르는 종합적 판단에 근거해, 하나님나라의 복음은 '지극히 작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으며, 서로 연대하며 평화를 누리며, 생태계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보존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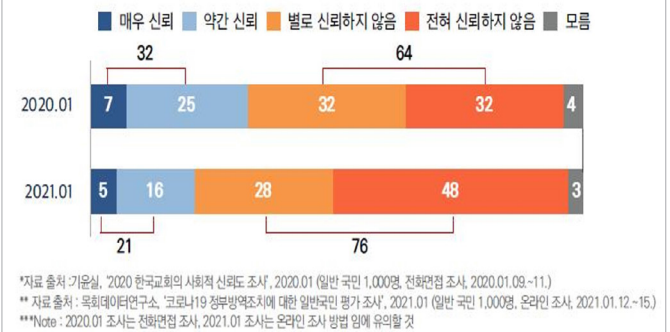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장기적인 접근법은 교회의 공공성을 확신하는 교회들로, 다양한 형태의 건강한 작은교회들이 '마을교회'가 대안이라고 본다.

두번째 발제자는 『퍼블릭 처치: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주제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정재영 교수가 발표하였다. 코로나 이후 종교에 대해 낙관적 전망과 비판적 전망을 하는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낙관적인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종교 단체의 모습이 사회공동의 이익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 매우 악화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교회는 여전히 사회에 대한 공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 요약 및 정리: 진상협 기자

[그림] 마을목회에서 경험



[그림] 한국교회 신뢰도 변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09회 총회

9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창원 양곡교회(장형록 목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9회 총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겔 37:14, 행 9:31)”를 주제로 개최됐다. 목사 총대 748명 중 558명이, 장로 총대 747명 중 621명이 참석해 총 1206명으로 과반수를 넘기며 개최했다. 김영걸 부총회장(포항동부교회)은 신임 총회장으로 자동 승계되었고, 정훈 목사(여천교회)가 2차 투표 끝에 신임 부총회장으로 선출됐다. 단독 출마한 윤한진 장로(한소망교회)는 장로 부총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주요 안건으로 헌법 제28조 6항 목회시대물림금지법(세습금지법) 폐지안은 찬성 370표, 반대 661표로 부결되었고, 교회의 세습 금지가 결정됐다. 총회 헌법 제1편 교리 제2부 신조(제12신조) 복원 개정안과 제2편 정치 및 헌법 시행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헌법 제2편 정치 개정안 통과로 '공유교회 설립'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목회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복음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선교사가 해외에서 시무하는 교회의 관리를 위해 해외에 선교노회를 조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이주민 선교사 관련 규칙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신학대학교 정관 개정, 총회연금재단 정관 등이 모두 통과되었다.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장 제2조는 총대들의 강경한 반대로 부결되어 부총회장 후보는 '노회장'을 역임해야 한다는 원칙이 유지되었다. 총회장 및 부총회장 후보자는 동성에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신설 규칙이 통과되었고, 목사고시 응시자도 동성에 반대입장을 서면으로 의무제출해야 한다는 규칙이 신설됐다. 여성 총대 할당제 청원안과 여성 리더십 제도 방안 청원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 건축 부채 15억원은 사회봉사부 기금으로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인공지능 시대, 목회자 윤리선언'이 채택되어 인공지능시대를 대비하고 목회적 활용을 돕기 위한 윤리 지침이 채택됐다. 농어촌교회 향촌직 직분자 은퇴 연령 연장은 1년간 연구하기로 결정되었다.

전 총회장 김의식 목사의 총회 참석 여부와 개회식 소동으로 긴장감 속에 시작된 제109회 총회는 신임 총회장의 사과와 함께 후속 조치 및 갈등 수습을 다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소망하며 마무리되었다. / 오수희 기자



(사진출처 기록일보, 국민일보)

100주년을 맞은 NCCK와 연동교회

100주년 에큐메니칼 감사예배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생명, 정의, 평화를 일구며 교회와 세상을 섬겨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중생 목사, 이하 교회협)가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 교회협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한국교회와 함께 시작하기 위해 여러 행사들을 열었는데, 특별히 9월 22일(주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 에큐메니칼 감사예배'가 연동교회 본당에서 오후 4시에 드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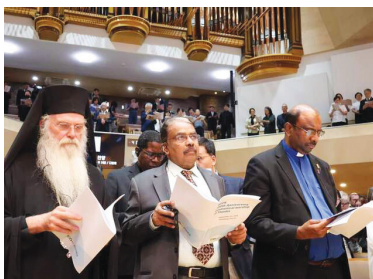
연동교회에서 열린 에큐메니칼 감사예배는 '감사, 다시 하나 됨'을 주제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실천신학교수인 최진봉 목사를 중심으로 한 기획연구팀과 이화여대 현대무용팀이 협력하여 기획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김영걸 총회장(포항동부교회)이 예배를 인도하고, 구세군한국군국 장만희 사령관이 설교를 맡았으며, 한국기독교장로회 전상건 총회장(서광교회)이 성찬을 집례하고 성찬 후 한 몸 기도를 통해 하나 됨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8명의 성찬위원회에는 연동교회 김현철, 이진우 목사도 함께했다. 예배는 교회협 회장인 윤창섭 목사(금마교회)의 강복선언과 파송행진으로 마무리되었다.

특별히 이날 예배를 위해 100주년을 상징하는 '100인 합창단'을 모집해 류형선 감독(광양시립창작국악단 예술감독)이 작사 작곡한 100주년 기념합창곡 '모든 아픔이 나의 통증이 되어'를 합창했다. '100인 합창단'은 교회협의 역사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 분들과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는 4.16합창단을 비롯한 여러 합창단, 100주년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로 구성되었는데, 연동교회에서도 4명이 참여했다.

이날의 100주년 감사예배는 교회협이 지나온 과거 100년이 특정한 소수만의 역사가 아니라 다양한 삶의 현장과 목소리들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낸 역사이며, 교회협의 100주년은 한국교회의 100주년이라는 것을 확인 받는 자리가 되었다.

/박현미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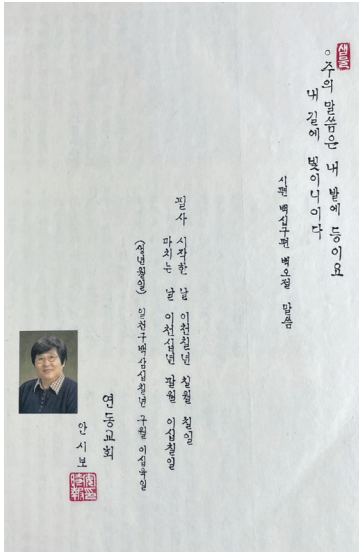
NCCK와 연동교회와의 관계

1924년 설립된 NCCK와 연동교회는 설립 논의 단계부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6대 김형태 목사는 NCCK를 대표하면서 국내외의 수많은 개척교단과 연합, 교류를 통해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남을 굵직한 업적을 남겼다. 몇 가지 대표 사례를 소개하면, 1974년 3월 30일 18개 교단 연합으로 30여만 명의 신도들이 모이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주도했고, 한국기독교협의회 통일문제연구원 운영위원장으로 2년여에 걸친 정부 당국과의 교섭 끝에 통일문제협의회를 개최하고 개회설교와 발제강연을 하였다. 국외적으로는 1988년 11월 21일 스위스 글리온에서 남북교회지도자들이 모인 WCC(세계교회협의회) 주최 한반도 평화회의에 NCCK 대표로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합의 발표했으며,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회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위해 남북과 세계의 교회 등이 매년 8.15광복절을 전후한 주일에 공동으로 드릴 공동기도문을 채택했다. 1989년 7월 14일부터 30일까지 당시 소련 모스크바에서 모인 세계교회협의회에 참가해 조선기독교연맹 중앙위원회 서기장 고기준 목사와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소련 당국의 협조를 부탁하였고, 본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 성명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도록 했다. 이러한 일들로 연동교회는 한국의 어머니교회라는 칭호를 갖게 되었다.

4대 전필순 목사 시절인 1959년에는 NCCK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WCC 가입문제에 가입 찬성은 연동파(통합교단), 반대는 승동파(합동교단)로 나뉘어 장로교단이 또 한 번 분열되는 계기를 맞기도 했다. 3대 함태영 목사는 현재 NCCK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교단을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지나고 보면 민족교회로서의 틀을 세운 초대 게일 목사의 영향을 받은 연동교회는 개인 구원을 넘어 사회 구원 차원에서 사회 정의, 인권, 남북 화해, 평화 통일 등 예언자적 전통과 에큐메니칼(교회 일치운동)을 지향하는 NCCK와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관계였다. 아쉬운 점은 1989년 보수 대형교회 중심인 한기총이 설립되는 시점에 7대 이성희 목사가 부임하면서 NCCK와 소원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성희 목사도 은퇴 후 NCCK 회장을 역임했다.

앞으로는 NCCK와 에큐메니칼 정신, 사회적 약자의 아픔과 고통, 정의, 평화, 생명, 창조, 하나님 질서의 보존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사회와 호흡하는 연동교회의 본 모습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이다. / 김주일 안수집사.

“안시보 명예권사님을 칭찬합니다!”



“필사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편하고 다른 잡념이 없고...” 팔순이 넘은 연세에 새벽 4시면 일어나 3시간 동안 성경을 필사한다는 안시보 명예권사님(원남구역). 지난 10월 13일(주일) 교회에 기증해준 20kg 무게의 필사성경책이 세 번째 필사였다고 하십니다(지체들 77p 참고). 기증 후 다시 또 필사에 도전하고 계신데 어느새 여호수아서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건강을 지켜주신 덕분이라며 겸손해하시지만 붓펜을 들고 공알보다 작은 글씨를 몇 시간씩 한자리에 앉아 쓴다는 건 젊은이에게도 힘든 작업입니다. 게다가 시중의 성경책과 똑 같은 구조와 배열로 오와 열을 맞춰 한지에 정갈하게 써내려간 필사성경의 완성은 과거 대기업체에서 의류 패턴사로 활약하며 익힌 손과 눈의 정밀성과 그동안 노트의 작은 칸에 붓펜으로 필사하며 저절로 만들어진 글씨체, 그리고 글씨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자리에서 수시간 동안 한 호흡으로 필사했기 때문이라고 그 비결을 밝혀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젊어서 바빠 일하느라 일독하지 못했던 성경을 필사하며 3독, 4독 하게 되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기쁨이었기에 힘이 들 때면 멈추고 싶었던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필사하며 성경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시119:105)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결국 “사랑”, 그 한마디를 위해 이토록 길게 말씀하신 걸 알았다며 행복하게 웃으십니다. 다시 시작한 성경필사가 무사히 끝나쳐지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 주시길 기도하고 계신다는 권사님, 성경을 쓰기 위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저절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 어느새 필사전도사가 되신 안시보 명예권사님을 크게 칭찬합니다.

/ 박현미 편집장

12, 1월 행사안내

월	일	행사(예정)
11	17일(주일)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축하음악예배(오후예배시, 본당)
	22일(금)	교구전체모임(오전 10시 30분, 본당)
	24일(주일)	성경통신부 수료예배(오후예배시, 본당)
12	1일(주일)	대림절 첫째주일, 새가족 만남의날(오후 1시 30분, 베들레헴예배실) 새가족 수료예배(오후예배시, 본당)
	8일(주일)	대림절 둘째주일, 은퇴 및 추대예식(오후예배시, 본당)
	22일(주일)	성탄주일, 온가족 성탄예배(오후예배시, 본당)
	25일(수)	성탄절축하 음악예배(오전 11시, 본당/주관: 연못골찬양대)
	29일(주일)	송년주일, 주일학교 수료예배(오후예배시, 본당) 당회(오후예배 후, 위즈덤하우스)
	31일(화)	새해맞이예배(오후 10시 30분, 본당)
1	5일(주일)	신년주일, 세례 및 입교예식(2부예배시) 제직회(4부예배 후, 본당)

제207회 서울노회 장로 부노회장에 김대진 장로 선출

연동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으로 부족한 제가 장로 부
노회장의 귀한 직임을 맡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
립니다. 성도님들의 응원과 사랑을 기억하며, 기대에 어긋나
지 않도록 노회와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대진 장로

노회장 : 이승철 장로(을지로교회)

부노회장 : 이언구 목사(용문교회) 김대진 장로(연동교회)

서기 : 박정호 목사(용문산교회)

부서기 : 김성경 목사(연지교회)

회록서기 : 박원빈 목사(약수교회)

부회록서기 : 박지환 목사(상심리교회)

회계 : 서상현 장로(영락교회) **부회계** : 김용욱 장로(구의교회)



태국 - 치앙마이 홍수

서경석, 박형경 선교사



치앙마이는 최근 두 차례의 홍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복구 작업에 한창입니다. 치앙마이 중심을 흐르는 핑강이 범람하여 많은 지역이 물에 잠기고 통제되었습니다. 저희 청년 프로젝트 카페도 홍수의 피해를 입고 복구 중입니다. 연속된 범람으로 카페와 주변이 물에 잠기고 물이 빠져 나간 곳은 진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상황이 빨리 정상화되고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쿠바 - 전염병 '오르푸치열' 확산

이범찬 선교사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체감하고 있지만, 쿠바에서는 더욱 실감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7월에 시작되던 극심한 더위가 올해는 5월부터 찾아왔고, 이로 인해 '오르푸치열'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해헨'이라는 모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질환인데, 저 역시 9월 초에 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도 여러 병에 걸린 경험이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병은 그동안 겪어온 병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병은 처음입니다.

현재 쿠바는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때는 무상 의료로 유명했던 이 나라는 이제 약도 전혀 없고, 병원조차 무용지물로 된 지 오래입니다. 더구나 이 병은 치료제가 아직 없어서 타이레놀과 이부프로펜으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가지고 있던 약을 현지인들에게 모두 나누어 드려서 약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저를 위해 약을 조금씩 모아 주셨습니다. 이 약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중에 더 많은 약을 준비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 유행병이 쿠바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콜롬비아 박재현 선교사



영상 링크:

<https://m.site.naver.com/1x7za>

• 기도 제목

1.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2. 10월 28일부터 3주간 방문하는 3팀의 안전과 은혜로운 일정을 위해서
3. 기숙사와 보육원 건축이 잘 진행되도록
4. 좋은 현지인 동역자들을 만나도록
5. 후원 교회와 개인에게 평안, 재경, 건강, 은혜가 있도록

인도네시아 - 사랑의 공동체 건축 보고 김태환, 주애니 선교사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님들과 하이청년부, 김주용 위임목사님과 세계선교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 사랑의 공동체 선교센터 본당 에어컨과 악기, 음향시스템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이청년부 단기선교 후, 사랑의 공동체 본당 에어컨 설치(6대), 유아실(1대), 방송실(1대), 선교관/방(3대), 사무실(1대), 총 12개의 벽체형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더불어 악기와 음향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이청년부 단기선교팀 결산 후 잔액을 사랑의 공동체 건축/선교 헌금으로, 본당 모니터 TV(85인치)와 본당과 선교관 숙소 커튼, 에어컨, 음향 시스템 추가지출 및 설치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사랑의 공동체 선교센터에 맡겨주신 사역을 합당하게 감당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본당(에어컨, 커튼, 음향시스템, 악기)



사랑의 공동체 선교센터(9월)



유아실



방송실



선교관 숙소

인도네시아에서 온 하이청년부 단기선교 영상



영상 링크:
<https://m.site.naver.com/1x7Dw>

중국유학생들을 위한 차이스타 집회 참석



차이스타(CHISTA) 집회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중추절 기간에 진행되는 3박 4일의 영적 부흥 집회이다. CHISTA의 비전은 전 세계 중국 젊은이들을 일으켜 영성을 새롭게 하며 세계 선교에 동원한다. CHISTA 집회는 주로 회심자들을 대상으로 유학생들의 영적인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다. 코로나 이후 2023년 오프라인 CHISTA 모임이 재개되었으며, 두 해 모두 참가자 수는 약 800명에 달했다. 중국 예배부 유학생들도 매년 이 집회에 참여한다. 올해도 몇 명의 유학생들이 참석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

올해의 주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인용한 "IN HIM"이다. 이는 우리가 예수그리스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는 뜻이다. 이번 집회에는 중국과 한국 많은 유명한 강사들이 오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중국에서 '미션 2030' 행사를 주도한 리성평 목사의 '폭풍 속의 희망'이란 주제의 말씀이었는데, 지금 중국교회가 직면한 외적인 고난과 폭풍을 여실히 보여주었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숨겨진 축복과 함께 복음의 문을 여시는지를 보여주셨다. 그는 중국교회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신앙의 순수성과 깊이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신앙을 굳건히 지켜 나가도록 격려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 간증과 열정적인 예배, 뜨거운 기도회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선교 이야기는 선교 개념이 낯선 유학생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해 주고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 복음의 황무지에 들어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도한다. / 류애정(중국어예배반)

WIN-Seoul이 함께한 연동교회 130주년

WIN-Seoul 교회는 연동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너무나 큰 은혜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연동교회가 이 이정표를 어떻게 기념했는지 목격한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행사 과정은 매우 훌륭하고 매우 섬세하게 구성되었습니다.

1894년 연동교회 창립 당시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이번 기념식은 연동교회 역사에 중요한 사건들을 조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소박한 시작으로 출발한 연동교회의 초대 목사가인 다문화 선교사인 제임스 게일 목사가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격려와 감동을 줍니다. 선교사님은 매우 폐쇄적인 한국 문화 속에서 기독교 전파에 앞장섰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전도의 수단으로 소녀와 소년을 위한 학교를 세웠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놀라운 점은 한국전쟁 이후 전쟁의 잔재를 수습하며 분투하던 1954년에 교회가 6번째 예배당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존재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공급하십니다. 사건들의 완벽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동교회 생활의 흐름을 세심하게 엮고 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연동교회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적인지 보았습니다. 연동교회의 열정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사역을 지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워가는 연동교회의 신실함과 관대함의 혜택을 받았으며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의 발전과 어려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를 겸손하게 보여주기 시작한 곳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인 연동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게 많은 영감과 더불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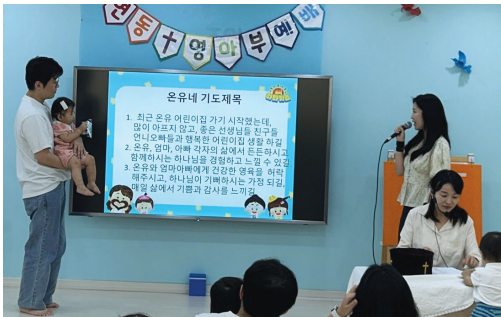
/ 글: Abel Raby 목사, 번역: 이학주 집사



< 영아부 > 부장 : 이현승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9	8	말씀으로 자라가는 연동아이(딤후3:16)	가정예배 기도제목 나눔(장온유 가정)
	15	말씀을 배우는 것이 즐거워요(느8:8)	추석명절활동(한복 조끼 만들기, 명절놀이)
	22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마7:24)	말씀집중주일
	29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신6:4-5)	말씀집중주일
10	6	나는 참 소중해요(고전3:16-17)	말씀놀이, 새친구 환영(고해인)
	13	친구와 함께 믿음을 지켜요(단1:8)	임산부 축복기도(이정진, 최동하 산모)
	20	사랑받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마16:18)	말씀놀이 우리교회 만들기
	27	날마다 새로워져요(계2:5)	말씀집중주일
11	3	사랑의 마음을 가져요(막 8:6)	말씀놀이 사랑의 도시락(오병이어) 만들기

/ 박윤신 부감



가정 예배 활동 및 기도제목 나눔(장온유 가정)



해인이를 환영합니다



추석 맞이 한복 조끼 만들기



임산부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

< 유아부 > 부장 : 천재운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9	8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딤후3:15-16)	공과책 만들기 활동
	15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느8:8)	송편 만들기
	22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마7:24)	공과책 만들기 활동
	29	말씀을 가까이하는 제자(신6:4-5)	반별 말씀암송 대회
10	6	나를 소중히 여기는 제자(고전3:16)	10월 생일파티
	13	함께 믿음을 지키는 친구(단1:8)	가을 야외 예배
	20	함께 복음을 전하는 친구(행9:27)	교회모양 양초만들기
	27	새로워지는 우리(종교개혁주일)(왕하23:25)	반별 말씀암송 대회
11	3	금혼한 마음을 가진 제자(막8:6)	11월 생일파티

/ 정윤정 부감



반별 말씀암송대회



교회모양 양초만들기



송편 만들기



가을 야외예배



가을 야외예배

< 유치부 > 부장 : 배광미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9	8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딤후3:15-16)	9월 생일파티
	15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느8:8)	추석 민속놀이 만들기
	22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마7:24)	월례회
	29	말씀을 가까이하는 제자(신6:4-5)	말씀암송 대회
10	6	소중한 나 (고전 3:16)	10월 생일파티
	13	함께 믿음을 지키는 친구(단1:8)	연동 역사관 탐방
	20	130살 우리 교회(행 16:5)	우리교회 생일파티
	27	서로 도와주는 친구 (막 2:5)	말씀암송 대회
11	3	아외예배	종로 삼청공원 아외 예배

/ 최정미 교사



세상 진지 연동역사관 탐방



친구야 생일 축하해



귀여운 친구들 만큼 귀여운 선생님



어린이 종합발표회를 마치고



사랑하는 연동교회 130주년 축하해요

< 유년부 > 부장 : 최경희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9	8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딤후3:15-16)	반별 공과활동
	15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느8:8)	반별 공과활동, 교사 월례회
	22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마7:24)	추석 특별 활동
	29	말씀을 가까이하는 제자(신6:4-5)	반별 공과활동, 교사 월례회
10	6	우리는 소중하고 특별해요(고전 3:16)	반별 공과활동, 9, 10월 생일잔치
	13	함께 믿음을 지키는 친구(단1:8)	반별 공과활동, 가을 나들이활동
	20	사랑하는 우리교회, 연동교회(요 1:14)	하반기 기독교 가치관 교육, 교사 월례회
	27	새로워지는 우리(막 12:44)	위임 목사님 순회예배, 전체 2부활동
11	3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제자(열하 23:25)	11월 생일파티, 수능 응원 편지쓰기

/ 성창원 교사



9, 10월 생일잔치



11월 생일잔치



가을 나들이



위임목사님 순회예배

< 초등부 > 부장 : 장미연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9	8	바이블 집중탐구(딤후 3:16)	리마인드 성경학교(여름성경학교 후속활동)
	15	톡톡 바이블 클래스(느 8:8)	창립 130주년 기념 어린이 페스타 : 웅알스 공연 및 에어바운스 행사(21일)
	22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의 집(마 7:24)	공과 공부
	29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방법(신 6:4-5)	생일 축하 파티(요거트 아이스크림 만들기)
10	6	GPL 뉴스 : 바울,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다(고전 3:16)	자녀축복기도회 참여(12일)
	13	페이스 크루(Faith Crew)(단1:8)	공과 공부
	20	바이블 어워드(행 9:27)	창립 130주년 기념예배 청소년주일학교 연합찬양대 참여
	27	바이블스타 : 요시아, 루터, 칼빈(왕하 23:25)	고구마 캐기 및 동물 먹이주기 체험
11	3	GPS-S 사전 : 공홀(막 8:6)	공과 공부

/ 양진실 기자



고구마 농원에서 동물들 먹이도 주어요



어린이 페스타를 위한 홍보포트!



창립 130주년 기념예배 청소년주일학교 연합찬양대 참여



저희가 캐 고구마예요



리마인드 여름성경학교로 후속활동했어요

< 어린이부 > 부장 : 윤종훈 안수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9	8	AWANA 2학기 3주차 “공경하라” (레 19:3)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15	AWANA 2학기 “안식일을 지키라” (레 19:3)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22	“우상을 섬기지 말라” (레 19:4)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9/21 웅알스 공연 당일 에어바운스 운영(열림홀)
	29	“그냥 내버려 두라” (레 19:9)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김이안 학생 송별
10	6	“정직하라” (레 19:11)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2024년 예산안 제출 및 심의
	13	“약한 자의 하나님” (레 19:14)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20	“약한 자의 하나님 2” (레 19:18)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130주년 기념예배로 전체 일정 단축 진행
	27	“10가지 계명” (신 5:6)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초등부 야외활동으로 저학년 위주 특별활동
11	3	AWANA 2학기 2주차 “성소를 거룩히 여기라” (레 19:30)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 윤종훈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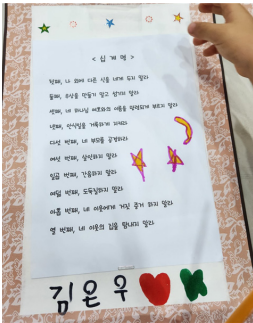
볼리레이 경기



소그룹 성경암송



저학년 활동 십계명



십계명 만들기



콩주머니 릴레이 경기

< 중등부 > 부장 : 정선아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9	8	영의 양식을 챙겨 먹고 다니자(딤후 3:14-17)	9월 생일축하, 1학년 점심 식사
	15	말씀을 통한 개혁, 회복(느 8:1-12)	추석 민속놀이 활동, 세례입교교육 1주차
	22	반석 위에 세운 집, 신앙(마 7:24-27)	세례입교교육 2주차, 청년 교사 저녁 식사 대접
	29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신 6:1-9)	세례입교교육 3주차
10	6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고전 3:16-17)	5일(토) : YD 청소년 페스타(마커스 찬양 집회) 성례주일(세례 입교식, 성찬)
	13	성공의 기준은 누구에게?(단 1:8-9)	12일(토) : 자녀 축복 기도회 10월 생일축하, 창립 130주년 찬양대 연습
	20	어떤 교회 이야기(사 61:1-3)	창립기념주일 퀴즈 대회, 창립 130주년 찬양대 연습
	27	우리는 한 팀!(고전 12:12-13)	중고등부 연합 가을 야외예배
11	3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 긍휼(막 8:1-10)	11월 생일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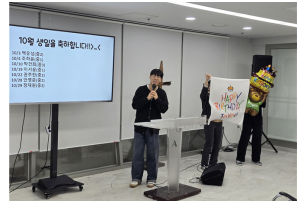
/ 권광호 전도사



추석 맞이 민속놀이 활동



YD 청소년 페스타(마커스 워십 찬양 집회)



생일을 축하해요!



창립기념주일 '연동교회 퀴즈' 활동



즐거웠던 야외캠핑



성례주일



중고등부 연합 야외예배



중등부 예배

< 고등부 > 부장 : 유성욱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9	8	[밥묵자] 생명, 생수, 그리고 성경(feat.성령님) (딤후3:15~17)	말씀카드 만들기, 세례 입교 교육
	15	말씀으로 새롭게(느8:1~12)	추석명절 놀이 및 음식 나눔
	22	듣기만 하는 신앙 vs 행하는신앙(마7:24~27)	8일(수) 풋살모임-중량물재생센터 풋살장, 세례 입교 교육
	29	삶의 나침반, 말씀(신6:1~9)	말씀카드 암송, 세례 입교 교육
10	6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고전3:16~17)	성찬식, 입교자 축하(양우주, 전하진), 고3 기도방(40일 기도), 5일(토) 130주년 청소년페스타- 마커스워십
	13	&고기가 이쁘하게 익지 않았어요& (단1:8~9)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회(10.6~11.14), 12일(토) 자녀축복기도회
	20	경계를 넘어서선 포용과 사랑(행9:26~27)	130주년 기념 도전 퀴즈 골든벨, 10월 교사월례회
	27	우리 모두가 한팀(고전12:12~13)	중고등부 연합야외예배 (곤지암 팀업캠퍼스, 26~27일)
11	3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 긍휼(막8:1~10)	고3 격려 및 응원 (청년부 임원단, 김윤기목사)

/ 이승원 부감



입교자 축하(양우주, 전하진)



도전 퀴즈 골든벨



.청년부 목사 및 임원단 고3 격려 방문



중고등부 연합야외예배-비긴어이쿠



청년부 연합 풋살모임

주니어콰이어, 교회창립 130주년 찬양 녹음



주니어콰이어는 초1~중1까지 아이들로 구성되어 매주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교회에서 찬양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년 이 다양해 음색 맞추기가 쉽지 않고, 익히는 속도도 다르지만 연습을 통해 찬양으로 어우러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없어 처음엔 4명, 5명 모이다가 지금은 11명의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니어콰이어는 종종 교회행사에 참여 요청을 받는데, 그럴 때마다 행사를 치르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린 이주일 온 세대 예배와 130주년 기념예배 때 주니어콰이어가 주축이 되어 주일학교 연합찬양대를 구성해 찬양 드렸습니다. 특별히 130주년 찬양 율동 “삼천리 반도” 찬양은 중등부 주 찬양대 3명, 주니어콰이어 9명의 아이들이 주니어 앙상블 김진환 지휘자가 운영하는 녹음실에 모여 녹음을 시행했습니다. 한 명씩 녹음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여러 소리가 합쳐 완성되는 과정을 체험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10월 3일(목)은 공휴일임에도 각자의 일정을 뒤로 하고 함께한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 마음을 담아 녹음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으로 현장 스케치 영상을 만들어 각 가정에서 선물했습니다. 11명의 목소리와 마음을 모은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느껴집니다. 녹음 현장모습의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연못길’에 영상을 공유합니다.



10월 20일(주일) 창립주일 기념예배 음악회에 주니어콰이어를 포함한 주일학교 연합찬양대는 중창 부분을 제외하고 그날 녹음한 녹음본을 들고 함께 찬양하며 율동했습니다. 연합찬양대는 유아부부터 중등부까지 모두 45명의 아이들로 구성되어 매주 조금씩 연습하여 율동과 함께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 안에서, 밖에서 아이들의 순수한 찬양 소리가 널리 퍼져 주님을 드높일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집사(주니어콰이어 지휘자)

아름꿈방 “책바자회+기부” 소식

청소년주일학교(교장 방영민 장로) 어린이전도단(단장 양진실 집사) 아름꿈방(방장 강희숙 권사)이 주관하여 8월 18일(주일)부터 9월 8일(주일)까지 4주에 걸쳐 진행했던 첫 번째 “책바자회+기부” 행사가 은혜 안에 마쳐졌다. 이 행사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책들을 기증하여 교회 선후배가 서로 바꾸어 본다는 의미있는 실천이면서 깨끗한 책들이 폐지로 버려지지 않도록 환경을 위한 선순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책을 1천원~4천원 정도에 구입하고 모은 수익금을 기부하여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책바자회+기부” 행사의 중요한 의미였다.

첫 수익금으로 모인 100만 원은 페루의 안길태, 박지원 선교사가 진행 중인 주일학교 성경공부 교재를 만드는 사업에 기부하게 되었다. 안길태 선교사는 그동안 선교 보고를 통해 주일학교 성경공부 교재 제작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려왔다. 어린이전도단에서는 ‘주일학교’와 ‘책’이라는 공통점에 의미를 두고 수익금 전부를 페루 선교 봉헌으로 기부하였다. 어린이전도단에서 연동교회의 “책바자회+기부” 소식을 안길태 선교사께 메일로 전했는데, 마침 6년 과정 교재 중 2년차 교재 작업을 시작하면서 12월부터 인쇄를 시작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이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감사하다고 답장을 보내왔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연동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구 반대편에 사는 페루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과 페루에서 각각의 행사와 사업으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책’이라는 하나의 열매로 맺어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2025년도 “책바자회+기부” 행사는 2월 23일(주일)과 3월 2일(주일)로 예정되어 있다. / 양진실 기자



구약성경 공과교재



페루 뜨루히요 루스 데 아모르 교회 공과교재 사용



신약성경 공과교재



콜롬비아 메데인 올리브교회 공과교재 사용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청년부에서 예람찬양팀과
주일 3부예배에서 트리니티 밴드 드럼
연주자로 섬기고 있는 오요셉입니다.
현재 저는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생으로
재학 중입니다.

음악 사역자 오요셉

| 나의 소명 도전기

저는 백석대학교 실용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음악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공연 연주와 교회 반주, 그리고 워십 캠프 사역 등 음악 활동을 다양하게 했으며, 또한 음악 강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같이 병행해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음악적인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지만, 진로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보이지 않았고, 저에게는 진로에 대한 고민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매일 기도하며 느껴왔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랜 기도와 간구 끝에 소명에 대한 확신과 응답을 받아서 올해 2024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생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힘든 가정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소천으로 방황하던 저의 삶은 어머니의 건강한 신앙과 기도로 좌우로 흐트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암흑기 같았던 저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성공적인 삶으로 바꿔보고자 음악을 전공했었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제 생각과 계획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손바닥만 한 한없이 작은 우물 안 개구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삶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저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건강한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삶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삶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또한 어릴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음악을 전공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저의 삶은 내 만족과 유익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꿔 나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원하셨습니다. 아직 대학에 가지 않았거나, 또 대학을 다니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한마디는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쁨지를 떠올리며 진로와 비전을 찾을 때 하나님께 꼭 간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음악적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드럼 레슨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QR코드 ▶
유튜브 채널명- 조셉드럼
(<https://m.site.naver.com/1x24G>)

SNS(공식 인스타 계정): jo_seph_4



/ 기획 및 사진: 송재호 기자



오래된 새신자, 이제는 연동의 밑알이 되기를



고석주, 복현정 부부(압구정청담삼성구역)

Q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본인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고석주: 초등학교 3학년 즈음에 옆집 고모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교회는 연못과 포도나무, 감나무가 있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주일 학교 생활이 아주 즐거워서 어른이 되면 주일학교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말씀보다는 교인들에 주목하게 되면서 방황하다 이제는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려 노력합니다.

복현정: 연동교회에 처음 나온 때부터로 보면, 30여 년 흘렀네요. 이 기간 동안, 주일에는 마치 방송국에 초대된 방청객처럼 가끔 주일 설교 말씀만 듣고 가곤 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처음 읽었던 1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기가 저에겐 중요한 시기였던 거 같아요. 이후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작년에 새신자 등록을 했고, 지금 교회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Q 연동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복현정: 결혼 전, 둘이 함께 교회를 찾던 중 고등학교 사회 선생님 소개로 들었던 연동교회 이름이 떠올라 찾게 되었어요.

Q 연동교회에 적응하기까지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복현정: 새 신자 교육실에서 만나보였던 분들의 수고가 기억에 남고요. 얼마 후 첫 주방 봉사에서 그릇 씻다가 김이선 집사님을 만나서 지금은 게일찬양대 대원이 되었어요. 그때 저는 좀 망설여져서 바쁘다고 말씀 드렸는데 후회하지 않고(^^)'그러면 언제 되느냐고 물어보셔서 감동이 되었어요.

Q 연동교인들과 나누고픈 기도 제목을 알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희망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저의 두 아들이 직장생활 잘 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를 기도합니다.

Q 새신자 입장에서 연동교회 목회자나 교인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고석주: 오랜 역사를 지닌 연동교회의 새신자가 되면 굳건한 신앙적 뿌리를 통해 열매 맺는 생명력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풍파에 흔들릴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복현정: 무교의 배경을 가졌던 제가 새신자였을 때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 종교도, 교회도, 신앙 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거의 모르고,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 같아요. 결국 시작을 성경책에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서 가능하면 그런 상황 속에 자주 접할 수 있게 되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Q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고석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현정: 저의 바램은 성경 말씀을 매일 읽을 수 있고, 기뻐하고, 말씀과 점점 가까워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Q 연동교인들과 나누고픈 기도 제목을 알고 싶습니다

고석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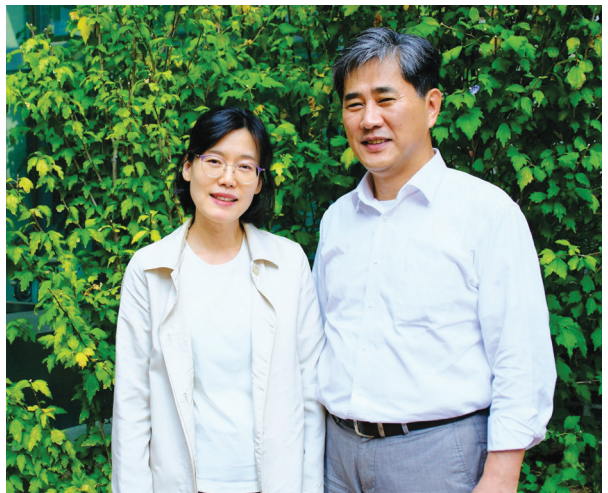
Q 현재 하시는 일과 미래 계획 또는 교회에 관심 분야를 나눠주세요

고석주: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와 기록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현정: 일차 의료에서 소화기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교회에 관심분야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아끼고 관심을 갖도록 노력 중입니다.

Q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고석주: 지금까지 연동교회를 지켜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한빛 목사님, 반갑습니다!”



연동교회에 오신 지는 몇 년 되셨는데, 이번 9월부터 부목사로 부임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2020년 유년부 교육전도사로 연동교회에 첫 인사를 드리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연못골’(2월호)에 올렸던 부임 인사글을 다시 읽어보니, 처음 연동교회에 왔을 때의 설렘과 감사가 새롭게 다가오네요. 지난 시간 동안 준전임과 전임 사역을 통해 유년부와 목회협력, 장년부 등 여러 부서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다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함께한 모든 순간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했으며, 이를 통해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기쁨과 사명의 무게를 한층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부목사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여정을 돌아볼 때,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는 감사가 큼니다. 특히 부족한 저에게 연동교회가 보내주시는 사랑이 크고도 깊었기에, 받은 사랑을 배로 나누기 위해 더욱 몸과 마음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가족을 소개해 주세요.

제 아내는 구현영 사모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내는 누구보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깊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아내는 진정성 있는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아내는 피아노와 만들기, 꾸미기 등 손으로 하는 일에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의 꿈을 가졌습니다. 대학 시절 중국에서 유학하며 방학마다 소수민족을 섬길 기회가 있었고, 불가리아에서 2년 동안 단기선교사로 섬기며 현장에서 선교를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 선교는 단순히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지라는 마음으로 선교가 무엇인지 아주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단지 나라와 나라를 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선교사이자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여전히 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목회철학에 대해 알려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20:28)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을 본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내세우기보다 낮아지셨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저 또한 목회 현장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의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기쁨과 아픔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 순간 진정성을 다해 만나는 모든 이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현재 연동교회에서 맡으신 사역에 대해 알려주세요.

3교구와 목회협력, 친교부, 장년부와 은퇴권사회, 1남여성교회, 그리고 전도폭발로 섬기고 있습니다.

연동교회와 교인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동교회에 있으면 있을수록,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지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 속에서 큰 감동과 힘을 얻습니다. 130년 동안 이어온 사랑과 믿음의 유산을 함께 지켜가며,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진정한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동교회가 되도록 잘 섬기겠습니다.

/ 정리: 박현미 편집장

“이진우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연동교회에 오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제가 연동교회를 밖에서 바라봤을 때는 오랜 전통의 교회들이 가진 스탠다드 같은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에 들어와서 보는 연동교회는 뭐랄까요, 상당히 대사회적인 길을 걸어오셨더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상처 입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많이 위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그런 모습들이 제가 표방하고 싶은 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내적으로는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동시에 사회를 등한시하지 않고 우리의 열매를 사회에 나눠주는 교회, 연동교회가 그런 멋진 교회인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멋을 좀 배워가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가족을 소개해 주세요.

아내(박용아)와 4살 터울의 딸 둘, 다희와 다은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내도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큰 아이를 낳고 산후풍으로 고생을 많이 해서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목회자로 집안의 중추였던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셔서 아내와 제가 멘토를 잃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힘들어 할 때 둘째 다은이가 선물로 찾아왔습니다. 장인어른이 2019년 8월에 돌아가셨는데 둘째가 다음 해 7월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희 가정에 많은 위로가 됐고 회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희는 해화초등학교 2학년생인데, 연동교회와 학교를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한 아내와는 온누리교회에서 만났는데, 저는 초등부에서, 아내는 영유아, 유치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딸로 자라 달란트가 많은 아내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고 싶어합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부산에서 목회를 하는 형이 있습니다. 형이 목회자라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어떤 이야기를 계기로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갓난아기 시절에 몹시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분유를 먹다가 기도로 넘어가 폐가 다 썩게 된 거예요. 이 아이는 가망이 없다는 의사 선생님 말에 부모님께서 큰 충격을 받으셨는데 이때 외할머니께서 저를 붙들고 밤새 기도하셨답니다. 외할머니의 표현을 빌자면 코에 코를 맞대고 입에 입을 맞대고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는데 다음 날 혈색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입시를 앞두고 듣게 된 저는 저만의 특새를 시작했고, 요나 말씀으로 결심을 굳혀 장신대 신학과에 진학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

목사님께서 관심 갖는 분야와 목회 철학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목회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노인 목회에 관심이 많아서 논문을 노인 가족치료에 대해 썼습니다.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더라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의 목회철학에 대해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배움이 더 필요한데, 제가 꿈꾸는 목회의 모습은 혼자 가지 않는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명의 성도가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그래서 나갈 때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저희 장인어른께서 지향하고 이끌어가셨던 목회의 모습을 본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귄이 있고 친밀함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연동교회에서 맡으신 사역에 대해 알려주세요.

2교구를 담당하며 일대일 제자훈련과 사회봉사부, 음악찬양부를 맡고 있고, 3남선교회 지도목사로 있습니다.

연동교회와 교인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바른 목사인지 늘 의심해주시고, 제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무엇보다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가는 자리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긴장하곤 하는데, 이제 성도님들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있으니 앞으로는 더욱 친숙하게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 정리: 박현미 편집장

“연동에서 만남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연동교회 부임 당시, 어떠셨나요?

연동교회에는 4년 전에 부임했는데, 부임 당시 코로나가 한창일 때라 걱정과 설렘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연동교회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여서 연동교회를 통해 배우게 될 것들이 기대되고, 사역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연동교회에 계신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심혈을 기울였던 사역이 있었다면 나눠주세요.

아무래도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역은 찬양사역이었습니다. 부임해서 모든 예배의 찬양인도를 담당해야 했기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사역이 오히려 성도님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과도 찬양을 통해 소통할 수 있었고, 찬양을 하기 위해 찬양팀들과 자주 만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연동교회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는 세례교육을 통해 연동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성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8주간의 교육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연동교회를 떠나며 그동안의 소회를 포함해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동교회를 떠나며 저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연동교회에 대한 여러 기억들이 있지만 결국 함께했던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교구에서 심방하며 삶을 나눴던 분들, 또 교구 임원으로 함께 애썼던 분들, 찬양팀과 찬양대, 일대일 제자양육, 상담팀, 세례문답부, 영성훈련부, 사회봉사부 등 여러 사역을 통해 함께 했던 성도들을 통해 많이 배우고 행복했습니다. 연동교회에서 행복했던 기억과 받았던 사랑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뤄지기까지 지금의 자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정리: 박현미 편집장

*김현철 목사님은 지난 9월 29일(주일) 4년 간의 연동교회 목회를 마치고 일산 영문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갈등의 시대,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위한 토크콘서트



인구 천만 명 서울에서 종교와 종교단체가 대사회적 역할로써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분야와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11월 8일(금) (사)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사장 지형은 목사)은 연세대학교 신학관 채플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여 동안 “메가시티 서울에서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시대공감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변상욱 전 CBS 대가자를 사회자로, 교회와 종교단체들의 사례발표 5건과 특별공연(송솔나무, 만남중창단), 사례발표자들의 토크쇼로 구성된 이날 토크콘서트는 갈등과 경쟁이 심화하는 시대에 종교가 어떤 사회적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집중 조명하는 자리였다.

사례는 1.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연동교회 사례를 중심으로(김주용 목사), 2. ‘맑고 향기롭게’의 근본 도량 길상사: 열린마음으로 세상을 품다(덕조 스님), 3. LifeHope(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예방센터 소개 및 역할(조성돈 대표), 4.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우리 농촌살리기운동-서울대교구의 활동을 중심으로(이승현 신부), 5. 종교법인 청호불교문화원의 설립과 30년간의 사회적 활동(김세곤 상임이사) 순으로 발표되었고, 토크쇼는 변상욱 사회로 조성돈 대표, 이승현 신부, 김세곤 상임이사가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사례발표를 위해 첫 번째로 연단에 선 김주용 목사는 “창립 초기부터 청년과 여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려고 했던 뿌리를 가진 교회”로 연동교회를 소개하며, “역사적으로 해방 이전에는 근대화와 자주독립을 위해, 산업화 시절에는 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위해, 탈냉전 시대에는 복지와 사회봉사의 역사적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개신교회의 대사회적 역할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연동교회의 사례들을 식탁나눔, 공간나눔, 생태환경나눔, 인정나눔, 사람나눔 등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도시속 기독교 기관으로서 선교의 개념을 확장하고 발전시켜 하나님과 함께 공동창조자가 되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자” 함을 천명하며 계속해서 연동교회는 바른 대사회적 역할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이날 생중계한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GTBIDWWF2IA>)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박현미 편집장

추석 합동 추모 예배



9월 14일(토) 오전 11시에 연동동산에서 추석 합동 추모 예배가 있었다. 강사겸 장로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찬송(412장)과 기도(김진기 은퇴장로), 성경봉독(강철민 장로) 후 김주용 위임목사의 말씀이 이어졌다. 김주용 위임목사는 '그래도 믿음대로(히 11:6)'라는 말씀을 통해 "고통과 고난, 위기가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

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도 믿음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간 우리의 가족이자 믿음의 선배인 그들이 남긴 신앙을 돌아보면 그들은 우리의 길잡이이자 안내자였고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유산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 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하고 복된 삶"이라 했다. 이후 기도와 찬송(542장) 후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 한 뒤 개인과 가정별로 추모의 시간을 보냈다. / 박윤신 기자

연동 실버아카데미 가을 소풍



9월 25일(수) 오전 9시 30분, 실버아카데미 박점분 목사와 김남순 원장, 교사들과 학생들 43명이 가평으로 연동 실버아카데미 가을 소풍을 떠났다. 점심으로 순두부 정식, 불고기를 맛있게 먹고, 경기도 갯창기푸른숲에 도착했다. 축령산 중턱에 위치한 이 숲은 산악지형의 '치유의 숲'이라 5만여 그루의 잣나무가 뿜어내는 상쾌하고 신선한 내음으로 더욱 건강해지는 소풍이 되었다. 서로서로 걷는 속도를 맞춰 담소를 나누며 산책한 이 시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졌다. / 고현수 기자

장년부 영성수련회



9월 27일(금)~28일(토) 장년부(부장 조수남 권사)는 회원과 봉사자 등 40명과 강화수양관으로 영성수련회를 다녀왔다. 1시 교회에서 출발하여 강화수양관을 가는 길에 강화도에서 제일 인기있는 조양방직 카페에 들러 잠시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강화수양관에서 맛있는 저녁식사 후 '공명의 신앙'(행 12:20~23)이라는 김주용 위임목사의 설교에 이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 이후 다양한 찬양으로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보내며 교제를 마무리하였다. 이튿날 아침에는 오한빛 목사의 설교로 마치는 예배를 드렸으며,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가을 정취 속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왔다. / 고현수 기자

연동 숲속 아기학교 6기 수료식



10월 26일(토) 가나의집 3층 영아부실에서 '연동숲속아기학교 6기'수료식이 있었다. 총 6명의 아이들이 함께한 6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주제로 9월 28일부터~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특별히 이번에는 교육 프로그램인 <센싱 아기놀이터로>로 진행하면서 보호자와 아기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놀고, 배우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경험하고 나아가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조'를 모티브로 하여 나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매주 '빛과 하늘' '땅, 바다, 식물' '해, 달, 별' '새와 물고기' '동물과 사람'의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4주차에는 삼청공원으로 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직접 보고 느끼며 자연물 액자도 만들었다. 5주간의 시간은 6명의 아이들과 부모님, 수고한 영유아 유치부 교역자들과 찬양, 율동, 교육 담당 선생님, 식사와 간식을 책임져 준 선생님, 사진 촬영으로 함께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했기에 가능한 시간이었다. / 박윤신 기자

서울노회 남선교회연합회 제3회 선교찬양제



서울노회 남선교회연합회 제3회 선교찬양제가 9월 29일 주일 오후 3시 연동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선교찬양제에는 참가 14팀과 찬조 출연 2팀을 합하여 총 16개 팀 300여 명이 참가하여 이전 찬양제보다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워졌다. 또한 참가한 지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워 780여 명이 찬양으로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지난 제1회 찬양제는 2018년 약수교회에서, 제2회 찬양제는 2022년 새문안교회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번 3회 선교찬양제가 참가 규모 면에서도 대회 준비도 가장 잘 되었다는 외부의 평가가 있었으며, 연동교회 남선교회 및 여전도회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정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준비하였다. 참가한 교회(중창팀)는 참가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다.

참가팀 소개: 을지로(갈렙), 자양(호산나), 문화(영혼의 멜로디), 진성(참소리), 신일(참소리), 광장(그레이스보이즈), 금호중앙(마하나임), 신당중앙(주하나), 중곡동(다윗), 홍익(다윗), 한성(살롬), 명륜중앙(에클레시아), 문호(아이노스), 연동(카이로스) 이상 14개팀

찬조출연 소개: 약수(엘리아), 연동(여전도회 찬양대) 이상 2개팀

/ 최현수 장로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마태 수난곡>을 마치고



마침내 찾아온 가을과 함께 열린 바흐의 <마태 수난곡> 음악회(10월 2일(수) 오후 7시, 본당)는 유난히 길고 힘들었던 여름이 남기고 간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수난에 관한 음악이기에 마땅히 부활절 전 고난주간에 열렸어야 했지만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념함에 있어 때와 장소가 정해져 있지는 않았기에 바흐의 음악과 함께 귀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였지만 어렵지 않은 해설과 적절한 화면 자료로 음악회를 차분히 이끌어준 장미경 교수의 해설은 시종일관 관객을 몰입시켰습니다. 총 3 시간이 넘게 걸리는 원곡을 1시간 남짓한 시간에 요약하여 담아내는 것이 해설자와 연주자 모두에게 큰 숙제였으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진행하는 '복음사가'(계봉원)와 '예수'(이문기)를 맡은 두 연주자의 레치타티보(말하듯이 노래하는 기법)로 시작하여 '어떤 사람'에 해당하는 소프라노(송영옥), 알토(최미란), 바리톤(이정희)의 아리아로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마태 수난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다섯 번의 코랄은 평소 알던 찬송가 멜로디였기에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노래뿐 아니라 악기(피아노 장미경, 오르간 김지리, 바이올린 안진영, 첼로 정지인, 플루트 이유선)도 다양하게 함께 하여 음악회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고, 연동의 자량인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한 김지리 권사의 노련한 연주로 음악회는 완성되었으며, 마지막에 관객과 연주자 모두가 함께 코랄을 찬양함으로써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까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며 음악회를 마쳤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본당의 무대와 수준 높은 연주, 집중력있게 음악을 감상해준 관객 등, 그날의 감동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지난 여름 이 음악회를 위해 함께 땀흘려준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우리가 흘린 땀보다 더 많은 피를 흘리신 주님이십니다./ 송영옥 권사(게일찬양대 대장)

어린이 YD페스타, 웅알스 공연



이웃과 함께하는 온세대 축제, 그 두 번째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YD페스타가 9월 21일(토) 오전 10시부터 교회 마당에서 시작되었다. 오전에 비가 오던 탓에 마당에 설치하려던 에어바운스를 열림홀에 설치했으나 어린이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교회와 열림홀을 오가며 마음껏 뛰어놀았다. 교회 마당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수고로 준비된 컵과일, 떡볶이, 샌드위치, 핫도그, 아이스크림과 음료 등 다양한 먹거리들이 무료로 제공되었다.

이 날의 주요 행사인 웅알스 공연은 오후 1시부터 본당에서 1시간여 열렸다. 웅알스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소리와 몸짓만으로 웃기는 난버벌 퍼포먼스 코미디 팀이다. 2007년 개그 콘서트의 웅알스 코너에서 시작해 현재까지도 전세계에서 공연하며 한국 코미디의 위상을 알리고 있다. 이 날도 웅알거리는 대사로 마임과 저글링 등 뛰어난 묘기를 선보여 웃음과 환호를 이끌어냈다.

특별히 공연 중간에 학부형 가운데 한 분을 무대로 이끌어 관객들과 공연을 만 들어가며 무대 위와 아래가 따로 없는 즐거운 시간을 선보였다. 아쉬움 속에 공

연이 끝난 후 외식상품권, 영화관람권, 편의점 이용권, 치킨 쿠폰 등이 걸린 경품추첨이 이어졌고, 돌아가는 모든 분들께 호두과자를 기념으로 나눠주었다.

지인의 권유로 처음 연동교회 문턱을 넘어 페스타에 참가했다가 웅알스 공연팀에게 선택되는 바람에 히어로 “빠빠”가 된 현준, 민준 아빠(김윤후)는 “오늘 아이들과 좋은 분들과 함께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 “연동교회에 다시 와야 할 것 같다”며 활짝 웃었다. 어린이 YD페스타 준비를 위해 수고한 방영민 장로(청소년주일학교 교장)는 오늘 행사를 위해 총 동원된 주일학교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향을 이룬 공을 돌리며, “비가 온다는 소식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거두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심을 다시 또 알게 하셨다”고 상기된 표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다./박현미 편집장



청소년페스타, 마커스워십 초청 집회



10월 5일(토)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동교회 본당과 마당에서 '청소년 FESTA'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먹거리 부스 운영, 자녀 돌봄 공간 제공,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마커스워십이 초청되어 찬양 집회가 진행되었다.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마당에서 중고등부가 운영한 먹거리 부스에서는 찜만두, 어묵, 추로스, 봉어빵, 음료수 등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간식이 제공되었다. 또한, 가나의 집 3층 영아부실에서는 취학 전 자녀들을 위한 자녀 돌봄 공간도 마련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편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오후 5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마커스워십 찬양 집회는 연동교회 본당에서 진행되었으며, 청년 봉사자들이 예배 참석자들의 자리 안내를 맡아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마커스워십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었으며, 청소년들과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김주용 위임목사의 설교, 마커스워십의 찬양, 권광호 전도사의 광고, 김주용 위임목사의 축도 순으로 예배를 마쳤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참가자들에게 3단 접이식 우산을 기념으로 증정하였다. 이번 청소년 FESTA는 마커스워십의 찬양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신앙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주태성 기자



장년 페스타, 남진 장로 초청공연



10월 19일(토) 오후2시~3시30분 본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남진 장로(새에덴교회) 초청 YD페스타 공연을 펼쳤다. 공연 10분 전에 1층이 만석되었고 2층까지 자리가 꽉 차 열기가 후끈거리는 공연이었다. 마당에서는 생강차를 대접했으며, 760여명이 참석하였고 공연이 끝나고 기념품(롤 케이크와 기념품)을 드렸다. / 이성훈 안수집사(장년 페스타 팀장)

1부: 시낭송(이금례 명예권사), 가수 홍준보 공연

2부: 남진 공연(동지, 가슴 아프게, 나야나, 빈잔,님과 함께, 파트너) 6곡

***최경희 권사:** 트로트라는 대중의 매개체가 교회와 함께 연계되어 이웃과 함께하는 축제의 새로운 장으로 주님의 참 사랑을 전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박정숙4 권사:** 믿지 않는 분들이 공연을 통해 교회를 찾고 교회가 이웃초청을 함으로 사랑과 베품으로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주형 권사:** 빈자리 없이 꽉 채워진 본당을 보며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행사에 목말라 있었음을 깨달았고 앞으로 문화예술 축제를 통해 교회 앞마당이라도 밝을 수 있도록 교회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영아 은퇴집사:** 외부 분들은 즐거웠다고 하시는데 찬양 한 곡이라도 불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바람잡이? 하는 가수가 너무 재미있는 입담과 노래가 구수해서 분위기가 좋았다.

***김수진 집사(실버아카데미 교사):** 홍보하면서 함께 드린 실버아카데미 전단지 보고 등록하신 분이 계시고, 찬송가나 간증 없이 교회에서 이런 공연을 하는 것에 놀랐다는 분들도 계시다.

2024 정기학술 세미나 연동교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30년 역사, 연동교회의 초석을 돌아보다

10월 6일 주일 오후예배 시간에 창립 130주년 맞이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교회의 역사와 초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초창기 교회의 역할을 강조한 게일 목사의 발자취를 통해 연동교회가 한국 교회 역사에 남긴 영향력을 재확인했다. 김주용 위임 목사는 연동교회의 길을 돌아보며 이를 후대에 전달하는 중요성을 강조했고, 게일 목사가 연동교회와 한국 교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음을 상기시켰다.

연동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변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연동교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사회적 책임”으로, 발표자는 안교성 교수(장신대 역사신학 은퇴)였다. 안교성 교수는 연동교회의 민중과 약자에 대한 책임감과 그 변화 과정을 조명했다. 특히 연동교회는 일제강점기 동안 독립운동과 3·1 운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이후에도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통해 ‘민중과 함께하는 교회’로서 시대적 책임을 다해왔다고 평가했다. 안 교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동교회가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젊은 세대를 위한 도심 속 문화적 허브로 안 교수는 연동교회가 서울 도심에서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 허브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로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교회와 지역사회가 소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종교적 장소를 넘어 교육과 문화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세대 간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역사와 전통을 미래로 잇는 연동교회의 역할

연동교회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민주화운동 등의 굴곡진 한국 현대사 속에서 신앙과 사회적 사명을 지켜왔다. 세미나에서 안 교수는 연동교회의 존재가 한국사와 밀접히 연결되었으며, 그 유산을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앙 실천에서 평신도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연동교회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연결 고리가 되기를 강조했다. 김주용 위임목사는 연동교회의 130년 역사와 전통이 미래에도 지속되길 바라는 희망을 표했다. 안 교수는 연동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며 세대와 소통하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한다면, 자부심과 미래 지향적 비전을 함께 품을 것을 당부했다.

/ 임재철 기자

130주년 교회창립 특별새벽기도회

10월 7일(월)부터 12일(토)까지 “교회를 세우리라” 주제로 월~금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130주년 교회창립 특별새벽기도회(말씀:김주용 위임목사)를 열었다. 130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이웃에 나누기 전, 우리 안에 130년 전 연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



10월 7일(월)

말씀 제목 및 성경구절 : 내가 네게 이르노니, 마 16:18 /

기도 : 박은화 장로 / 특송 : 1남선교회

10월 8일(화)

말씀 제목 및 성경구절 : 너는 베드로라, 마 16:18 / 기도 :

구자학 장로 / 특송 : 1여전도회

10월 9일(수)

말씀 제목 및 성경구절 :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마 16:18 /

기도 : 이수진 장로 / 특송 : 2남녀선교회

10월 10일(목)

말씀 제목 및 성경구절 :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 16:18 /

기도 : 최영익 장로 / 특송 : 3남녀선교회



10월 11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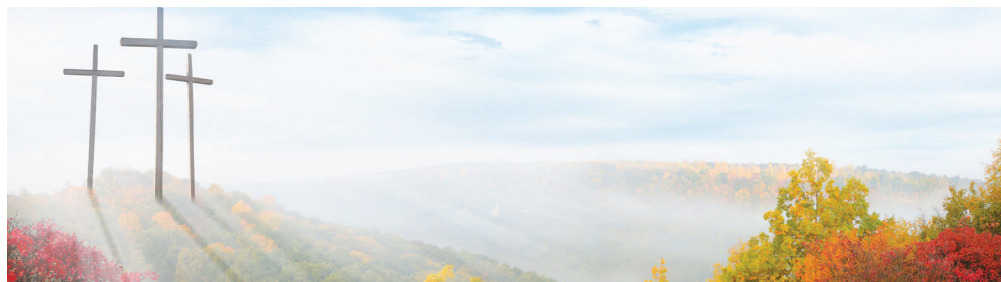
말씀 제목 및 성경구절 :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하리라,

마 16:18 / 기도 : 박재천 장로 / 특송 : 4남녀선교회

10월 12일(토) : 자녀축복기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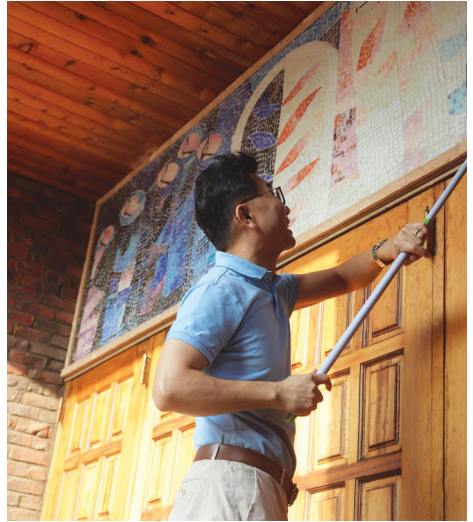
말씀 제목 및 성경구절 : 우리가 꿈꾸는 교회, 마 16:18 /

기도 : 방영민 장로 / 특송 : 유 초등부 연합 찬양대



가을 대청소 실시

10월 12일(토) 교회 창립 기념 특별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오병이어의 집에서 공동식사 후 아침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자율적으로 가을 대청소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교회 창립주일을 앞두고 각 교구와 부서가 지정된 구역을 맡아 교회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정리하며 청소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서울노회 여전도회 평생회원의 날



10월 10일(목) 서울노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양평 문호교회에서 제 43회 평생회원의 날 행사와 함께 80여 명 신임 회원들의 환영식을 가졌다. 이날 예배는 문호교회 전창근 목사의 설교와 송학대교회 박병주 목사의 특강, 그리고 연동교회 김인혜 권사의 봉헌기도와 샬롬중창단의 특송으로 더욱 은혜롭고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김경숙 서울노회 여전도회 회장은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주신 평생회원과 여전도회원들께 감사 드리며 아직 평생회원이 되지 않은 회원들은 속히 참여하여 선교여성으로서 헌신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 바란다”고 권면하였다. 무

르익은 청명한 가을날씨 아래 아담하고 예쁜 문호교회에서 밤새 끓인 따뜻한 대추차와 갓은 나물로 육의 양식을 대접받았다. 양평 서종면 지역문화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문호교회는 119년 된 역사 깊은 교회로 6.25전쟁 때 소실된 예배당을 온 성도와 주민들이 강가의 돌을 주어 한돌성전을 건축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새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한돌성전은 문호리의 랜드마크로 남아 있다. 돌아오는 길에 김인혜 권사의 돕는 손길로 멋진 북한강가 카페에서 맛난 디저트와 함께한 행복한 시간도 가졌다./ 김수연1 권사(3여전도회 회장)

창립 130주년 기념 통일학술세미나

분단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길



10월 13일(주일) 오후예배는 정진호 교수(포항공과대학)를 강사로 모시고 통일학술세미나로 진행되었다. 김주용 위임목사의 기도와 성경봉독(창50:14-26)에 이어 시작된 강연은 불안한 초 갈등의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민족의 분단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가야 할지 숙고와 통찰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강사는 아버지 야곱의 장례 후 형제들이 과거의 잘못과 아픔을 두려움으로 다시 드러났을 때 요셉이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갔는지 알려주며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의 비극을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뜻을 우리도 요셉처럼 헤아려 겨레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힘을 쏟고 외면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하마스의 이스라엘 폭격과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중동 전쟁의 상황을 언급하며, 전 세계의 다양한 반응을 고찰해 주었다. 이러한 세계

정세를 통해 과거 6.25전쟁과 현재의 갈등을 비교하며, 세계의 시선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변할 수 있는지 전했다. 갈수록 초 갈등사회가 돼 가고 있는 세계 정세에서 휘둘리지 않고 우리 나라가 살 길, 미래 세대에겐 꿈과 소망을 줄 길은 우리 민족이 하나되는 것이라고 내내 힘주어 말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연변과기대 교수로, 평양과기대 설립부총장으로 중국과 북한에서 가족을 데리고 함께 생활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정진호 교수는 특히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80일간 육로 여행을 한 경험을 강조하며, 자신을 낭만주의자로 소개했다. 낭만주의자란 가장 소중한 가치를 위해 덜 소중한 가치를 초개처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라고 정의 내린 그는 우리 근대사에서 그런 삶을 산 남북의 기독교 독립운동가들과 게일 목사를 비롯한 캐나다 선교사들에 대해 조명해 주었다.

강연 후 한 민족 두 국가론과 남북한 철강공동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마당에서 정진호 교수 도서 판매와 저자 사인회가 있었다. / 박현미 편집장

임산부 축복기도



10월 13일(주일) 영아부(부장 이현승)에서는 영아부 예배를 마친 후 임산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정진 성도의 반짝이(태명)와 최동하·윤병익 성도의 하송이(태명)는 모두 각 가정의 첫 번째 선물이다. 초음파 사진으로 만나는 반짝이와 하송이를 소개한 뒤 각 가정에서 준비해 온 편지를 태아에게 읽어주고 선물을 나누었다. 이어 영아부 부모들과 교사들이 두 가정의 부모와 태아들을 위해 축복의 노래를 함께 불러준 뒤 표경림 영아부 목사의 축복기도로 마무리하였다. / 박윤신 기자

오직 성경만 드러나기를 - 안시보 명예권사 필사본 증정식



안시보 명예권사(원남구역)의 두 번째 성경필사본 기증식이 10월 13일(주일) 3부예배 후 더게일홀에서 김주용 위임목사와 많은 교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완필까지 3년 1개월 20일의 시간과 900여 자루의 붓펜이 사용된 이 필사본은 가로 44cm, 세로 56cm, 무게 20kg에 달하며, 구약 1,330쪽, 신약 422쪽은 물론 목차와 주기도문, 사도신경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을 인쇄된 책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또한 표지는 송아지 가죽으로 제본되어 있다. 이 필사본은 교회창립 1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전교인 성경필사본과 함께 연동교회 평신도 사역의 귀한 자산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이정민 장로

게일문화상, 송암봉사상 기자간담회



10월 16일(수) 오후 4시 게일문화상, 송암봉사상 사무국(국장 최기식 장로)은 게일문화상, 송암봉사상 수상자들과 함께 CTS, CBS, 국민일보, 기독교일보, 기독교공보 등의 기자를 모시고 야베스의 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진양 장로(사무국 총무)의 사회로 김주용 위임목사의 인사말과 게일문화상, 송암봉사상에 대한 배경과 수상자 선정 설명이 있었다. 뒤이어 성현 목사(사)필레마 필름포럼 대표)와 조성돈 대표(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예방센터)의 단체를 알리는 브리핑과 수상소감이 있었다. 수상 소감으로 성현 목사는 “그동안 기독교 문화 예술가들을 지원하며, 교회와 세상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게일문화상 수상이 큰 격려가 되었고, 앞으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전했고, 조성돈 대표는 “송암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며, “자살 예방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 상을 통해 큰 격려를 받아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박현미 편집장

성례주일 세례식



10월 6일 성례주일 2부예배 시간에 입교·세례식이 있었다.

세례자 : 강예준 박지현 유윤희 최순기 입교자 : 양우주 전하진 조건우

나오미 농촌 봉사



10월 21일(월)과 22일(화) 양일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에서 '나오미 농촌봉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4년째 진행된 행사로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김주용 위임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두 14명이 참여하였고, 힘든 봉사활동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에 참여한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수고와 정성으로 마련된 점심상은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맛있는 식탁이었습니다. 고된 일과를 모두 마치고 예산읍내 구경과 함께 한 저녁식탁의 교제 또한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봉사활동 전주에 비가 많이 내려 여건이 좋지 않아 수확량이 다소 적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나고 자란 저로서는 이제껏 한번도 낫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서툴고 그래서 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내년엔 좋은 날씨와 더불어 성도들의 더욱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 유기정 집사



연못골 편집부 워크숍



10월 9일(토) 출판선교팀(팀장 박현미 권사)의 연못골 편집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이경아 기자의 공간'숲' 공유사무실에서 하반기 워크숍을 가졌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워크숍 1부는 목상과 여는 말 뒤 2024년에 발간한 연못골 소식지에 대한 기자 각자의 리뷰 및 피드백과 2025년에 발간할 연못골을 계획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근처 식당에서 점심식사 후 시작된 2부는 기자들 역량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한 연못골 편집”(이만희 전임 주간)과 “연못골 기자 베이직 프랙티스”(박현미 편집장)를 주제로 한 기자교육이 있었다. 이어서 오전 시간에 못다한 2025년 계획에 대한 열띤 토의와 신규 코너 및 효과적인 편집방안에 대한 고민과 의견을 이어갔고, 공동기도문 낭독과 돌아가며 한마디씩 기도한 후 모든 순서를 마쳤다./ 진상협 기자

2교구 가을나들이



10월 25일(금) 2교구(교구장 이진우 목사, 담당 이호진, 김진양 장로)는 교구 전체모임을 마치고 친교실에서 식사와 주방 설거지 후 창경궁으로 야외 고궁나들이를 다녀왔다. 새로 부임하신 이진우 목사를 모시고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2교구 식구들은 가을에 진하게 무르익은 고궁을 걸으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나들이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맛있는 차와 디저트를 나누며 서로 친목을 다진 후 모든 일정을 마쳤다. / 김경원 권사(2교구 총무)

하반기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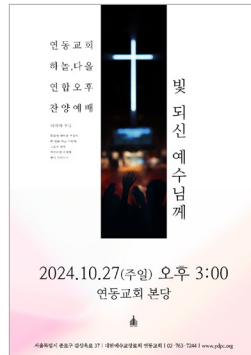


교회, 따뜻한 밥상 및 도움이 필요한 교우들에게 전달하였다. 주님의 사랑을 주변에 나누는 일에 관심과 참여, 응원을 보내주시는 교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조형욱 집사(사회봉사팀 총무)

10월 27일, 11월 3일 두 주일 동안 사회봉사부(부장 박재천 장로)는 교회 앞마당에서 하반기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사회봉사부가 전 날부터 준비한 수제 대추생강차를 교인들과 나누며 활발한 교제 가운데 모금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쌀 160Kg, 봉헌 460만 5,000원이 모금되었고, 봉헌금으로 쌀을 구입해 마련된 총 1,970Kg의 쌀은 11월 15일(금) 종로5,6가동 주민센터, 등대교회(죽방산교), 다-품, 반석교회, 베데스다선

하늘, 다울찬양팀 주관 찬양예배



하늘, 다울찬양팀은 2024년 10월 27일(주일) 오후 3시 연동교회 본당에서 오후 찬양예배를 드렸다. 박주안 목사의 인도로 찬양집회를 시작했고, 찬양은 <기대,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해뜨는 데부터/손을 높이 들고, 멈출 수 없네, 주 보좌로부터/생수의 강이, 십자가의 전달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순으로 진행했다. 이어서 김주용 위임목사가 <빛 되신 예수님께(이사야 9:2)>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기도 후 하늘, 다울 찬양팀은 <주만 바라볼찌라,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을 드렸고, 김주용 위임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주태성 기자



여전도회 선교찬양제



10월 29일(화) 여전도회찬양대(대장 최민자 권사)는 영락교회 베다니 홀에서 열린 제 44회 선교찬양제에 참가하였다. 이번 찬양제에는 서울노회 11개 팀이 참여하였으며 연동교회는 4번째로 무대에 올랐다. 최은복 권사의 지휘와 김진 권사의 반주 그리고 48명의 찬양대원들이 마음을 합해 부른 '민음의 축복(김민식 곡)'은 수개월 동안 함께 수고한 노력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에 충분한 찬양이었다. 이날의 아름다운 하모니는 여전도회 선교사업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 게다가 처음으로 통일된 연분홍빛 드레스를 입고 참가한 연동의 여전도회찬양대원들은 모두들 새색시처럼 아름다웠다. 찬양곡의 가사 중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라는 내용처럼 연동 여전도회 찬양대는 기쁨상을 받았으며, 이번 찬양제에는 참여팀 모두가 수상의 기쁨을 경험하였다. 선교찬양제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여전도회 찬양대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 민병애 권사(여전도회찬양대 총무)

중보철야 기도회



11월 1일(금)부터 2일(토)까지 목양위원회 중보기도팀(팀장 김예주 권사)은 강화수양관에서 8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주어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중보철야 기도회를 열었다. 이진우 목사의 찬양 인도로 시작하여 김주용 위임목사의 주제 말씀과 계대운 목사의 기도회 인도로 새벽 2시까지 뜨겁게 기도회를 이어갔다. 중보철야 기도회는 연 2회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고 있다.

/ 김예주 권사(중보기도팀 팀장)

하기폰 오카리나 제4회 정기연주회



토요소그룹 하기폰 오카리나가 11월 10일 (주일) 오후 4시 30분 더게일홀에서 가을음악회를 열었다. 37명의 단원들이 독주와 중주를 이어갔으며, 특별출연으로 토브 팬플룻 연주가 있었다. 120여 명의 관객객이 함께했으며,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연주하며, 1년의 연습과 훈련으로 준비한 연주회를 마쳤다. / 이경아 기자



신협 조합원 소무의도 방문

11월 5일(화) 인천 소무의도에서 2024년 하반기 신협 조합원 행사가 있었다. 9시 교회에 모여 김주용 위임목사의 기도 후 출발하여 실미도, 천국의 계단 촬영지 등을 탐방하였다. 점심을 먹고 소무의도에 도착한 뒤 조별로 각각 트레킹과 마을 및 80년 된 교회를 방문 후 돌아오는 길에 오션뷰와 베이커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영종도 카페에서 가을의 끝자락을 여유롭게 마무리하고 예쁜 추억을 가슴에 깊이 담으며 돌아왔다. 총 31명이 참여했으며 좋은 날씨 가운데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다. 참여한 조합원들은 이렇게 소감을 전했다.

- 아름다운 자연과 좋은 먹거리, 연동의 가족들과의 풍성한 교제시간이었습니다. (장연화 권사)
- 모처럼 바다와 둘레길을 걸으며 자연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류옥순 공로권사)

/ 정영희 권사(연동신협 상임이사)



당회원 수련회



11월 9일(토) 목사, 장로 26명이 참석한 당회원 수련회가 북한산 트레킹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산 우이령길을 한시간여 트레킹하고, 근처 식당에서 식사한 후 인근 하이그라운드 제빵소에서 차 나눔과 담소, 그리고 음악회 공연감상을 하고 해산했다.

/ 김종은 기자

제3남선교회 친목 야외예배

통상 가을에 해오던 3남선교회 신양 수련회는 올해 130주년 기념행사 등으로 잠정 취소하게 되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하시면서 3남선교회 지도 목사를 맡으신 이진우 목사님을 환영하고, 회원들 간의 교제의 시간을 늘리는 차원에서 지난 11월 9일(토) 포천 시 소재 은혜수련원에서 '친목 야외예배'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4남선교회 회원 및 준회원들도 참석해 약 40명에 육박하는 참여자들과 함께 매우 즐겁게 진행되었다. 좋은 날씨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온전하게 매는 띠"의 설교 말씀, 실내에서의 몇몇 게임, 그리고 야외에서의 발야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맛있는 점심 등으로 오랜만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좋은 교우들과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았다. 9시 30분에 모였던 회원들이 오후 5시가 넘도록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회원들이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임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다. / 김찬진 안수집사(3남선교회 회장)



예배부 화재 발생 대응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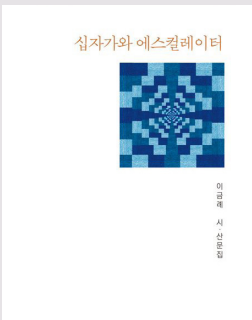
11월 10일(주일) 본당 현관에서 예배부(부장 박은화 장로) 담당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윤오선 사무처장의 지도로 화재 발생원인, 화재 발생시 대처 방법, 대피계획 등에 대해 교육받았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1월 14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으며, 베들레헴예배실에서 학부 모 기도회가 있었다.

고3 수험생 명단: 강신흥, 강준호, 강효원, 고서연, 고응비, 김가람, 김규빈, 김성은, 김수영, 김예나, 김예린, 김진희, 박성현, 박주연, 성만규, 손정민, 유승, 이서원, 이윤서, 이종찬, 이지민, 전종민, 정아림, 정찬희, 진예찬, 최태인, 황보재운

이금레 명예권사, 시와 산문집 <십자가와 에스컬레이터> 발간



이금레 명예권사(백주년구역)가 10월 15일 시와 산문으로 엮은 <십자가와 에스컬레이터>(Human & Books)를 펴냈다. 이 책에는 '나팔꽃 신자'를 비롯한 시 27편과 '에스컬레이터'를 비롯한 수필 25편이 실려 있다. 이금레 시인의 시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고 현실 속에서 시적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시적(詩的) 지혜가 있으며, 산문 또한 고난 끝에 신앙으로 찾은 안정을 글맛 좋게 풀어놓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2016년 계간 <에세이포레> 가을호에 수필로 등단한 이후 시집 <나는 붉은 치자꽃이었다> <바람의 여자> <내 중심을 낚는 이 누구인가>, 수필집 <허물벗기> <이화동 연가>를 펴냈고, 2020년 <포에트리 아바> 수필문학상을 받았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종로지부 회원이며, 2022년 시낭송 교육지도사(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자격을 취득해 유튜브에서 시낭송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박현미 편집장

성경통신강좌 결산

11월 24일(주일) 오후예배시간에 교회학교 성경통신부(부장 황석상 안수집사)가 주관하는 성경통신강좌 수료예배가 진행된다. 성경통신강좌의 수료기준은 40주이다. 성경통신강좌 수료자는 190명, 한가족통신상은 5가정으로 집계되었다. 앞으로도 성경통신강좌가 개인의 말씀묵상과 기도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도구로 사용되길 바라며, 내년에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 김현정 집사(성경통신부 교무)

<수료자, 수상자 명단>(직분 생략/여,남,가나다순)

1) 년차별 수료자 명단

구분	인원	수료자
1년차 수료자	13	공혜경, 권점자, 김경원, 김세라, 김은진1, 김정안, 김정하, 김현정, 김효자, 박기철, 박재경, 양세현, 현옥희
2년차 수료자	13	김경애, 박순금, 이상범, 이경주, 이재훈, 이영미, 임영선, 임정희, 유영인, 오명화, 장선이, 한춘순, 홍림
3년차 수료자	4	고정자, 김순선, 김지리, 이경순
4년차 수료자	2	김경미, 김영옥1
5년차 수료자	6	김영복, 심현숙, 윤은숙, 박미경, 윤복기, 윤종훈
6년차 수료자	4	강은경, 김경옥, 김희경, 조용상
7년차 수료자	3	김찬진, 윤문희, 최민자
8년차 수료자	3	김순자3, 박영수, 한기석
9년차 수료자	5	김형기, 김창미, 박현철, 여명선, 이항이
10년차 수료자	2	김연수, 정영희
11년차 수료자	8	김선훈, 김선미1, 김태화, 박은화, 이성숙, 위선진, 정영아, 조혜숙
12년차 수료자	9	김한영, 방난수, 이수진, 이순덕, 이옥희, 윤희, 장선업, 조선영, 홍염숙
특별기 수료자	117	나정자, 배광미, 박혜영, 손정숙, 오영순, 유명숙, 윤종환, 이미원, 이영숙3, 임현정, 이철수, 임인수, 장영순, 정선화, 정선희, 강영옥, 고영선, 고수경, 고옥강, 김기숙, 김경숙1, 김경임, 김두옥, 김명신, 김보동, 김선진, 김선희2, 김성실, 김성연, 김성영, 김수연2, 김영열, 김예슬, 김원광, 김윤환, 김응식, 김영희, 김영숙, 김정희, 김정숙, 김정자2, 김진성, 김창호, 김홍순, 김호재, 나운영, 나경남, 남두리, 류현정, 민병애, 민홍기, 문우철, 문춘애, 문현, 류현정, 박미자, 박선복, 박선미, 박문숙, 박양, 박연식, 박은주, 박영란, 박정신, 박중서, 박현옥, 박재천, 방선자, 백귀선, 봉정민, 서영자, 신복수, 신용식, 신영자, 성열숙, 심석환, 심희순, 신희덕, 안문환, 양미화, 양연화, 양행화, 오경숙, 윤명순, 윤영란, 오경덕, 유미애, 유정원, 육경민, 윤정호, 이금례, 이명복, 이미라, 이복연, 이성춘, 이영식, 이옥화, 이윤복, 이재원, 이정자1, 원철, 우윤지, 이종진, 임순기, 임영애, 주정진, 장상애, 장동철, 전민규, 정혜란, 최명호, 최영준, 최호준, 최홍기, 홍양금, 황삼남, 황보정숙

2) 한가족 성경통신상 수상(총 5가정)

1	윤복기	박미경	윤종훈		
2	최명호	최호준	최영준	손정순	
3	박연식	윤중환	윤정호		
4	이복연	김진성	류현정	김예슬	김호재
5	심희순	박선복	심석환		

총 수료 인원(190명)

년차	남자	여자	소계
특별기수료자	40	78	118
12개년 수료자	3	6	9
11개년 수료자	1	7	8
10개년 수료자	0	2	2
9개년 수료자	2	3	5
8개년 수료자	2	1	3
7개년 수료자	1	2	3
6개년 수료자	1	3	4
5개년 수료자	3	3	6
4개년 수료자	0	2	2
3개년 수료자	0	4	4
2개년 수료자	3	10	13
1개년 수료자	2	11	13
합계	189	132	190

교구	제출자	30주차	수료자	소계
1교구	51	3	48	51
2교구	33	2	31	33
3교구	45	4	41	45
4교구	55	7	48	55
5교구	25	3	22	25
합계	209	19	190	209

교회 첫 출석 아기



10월 6일 주일 3부 예배

고해인 아기 (여, 2024년 6월 21일생) 고진성 성도, 김은동 성도의 딸/ 쌍쌍 7구역

사랑하는 해인아. 아빠 엄마는 해인으로 인해 기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 해인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늘 기도 할게. 사랑해♡^^



11월 10일 주일 2부 예배

박수아 아기(여, 2024년 8월 19일생) 박예찬 성도, 한예은 성도의 딸/ 쌍쌍 9구역*한성기 성도, 김옥자2 집사의 외손녀

사랑하는 수아아, 너를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자녀로 쑥쑥 성장할 너를 기대하고 축복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길 엄마 아빠가 항상 기도하고 함께할게♡



새가족 소개



김승희 성도
(2교구, 쌍쌍아일 구역)



김은아 성도(1교구 경인구역)



박건호, 노가희 성도
(4교구 제기청랑회기구역)



이순우 성도(3교구 충신구역)

■ 연동어린이집(원장 조주은 집사)

10월 “너와 내가 함께꾸는 꿈” ▶ 연동어린이집은 10월 30일(수) 발표회 및 바자회 ‘너와 내가 함께 꾸는 꿈’-가치 또 같이 : 연동어린이집의 모든 아이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사들이 모여서 ‘너와 내가 함께 꾸는 꿈-가치 또 같이’라는 주제로 발표회 및 바자회를 했습니다. 바자회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알고 발표회를 통해 한 학기동안 쉼쉼 자란 아이들의 모습에 행복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 연동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수미)

▶ 연동지역아동센터는 10월 4일(금)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고추장 담그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활동에 들어가기 앞서 전통 장류의 기초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추장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주변에서 쉽게 접해볼 수 있는 고춧가루, 간장, 소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옛기름으로 숙성시킨 찹쌀풀과 어우러진 고추장은 3개월의 숙성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항상 마트에서 사 먹기만 했던 고추장을 본인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



■ 연동실버아카데미(원장 김남순 권사)

▶ 연동실버아카데미는 9~10월 매주 수요일 수업이 있다. 특성화된 6개 반(건강체조, 폰과함께, 몸다스리기, 꽃색연필화, 노래와즐거게, 종이접기)과 이미용 봉사가 진행되었다. 9월 잣하기 푸른숲 가을소풍도 잘 다녀왔으며, 11월 중강발표회도 계획중이니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협 현황

(9월 30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13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 자 금	예탁 및 적금	적 립 금	기타 부채	합 계
	5,312,293	38,666,639	2,038,403	1,168,407	47,185,742
유동 자산	총 대출금	투 자 금	현 금	제 세 금	합 계
	32,678,124	690,140	57,020	13,760,458	47,185,742

(10월 31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14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 자 금	예탁 및 적금	적 립 금	기타 부채	합 계
	5,321,193	39,220,843	2,105,477	1,066,387	47,713,900
유동 자산	총 대출금	투 자 금	현 금	제 세 금	합 계
	31,667,156	660,652	70,176	15,315,916	47,713,900

목양위원회

■ 결혼식

- 김민정(김기호 원로장로, 김인숙 은퇴집사 딸/압구정청담삼성구역) 양과 이혁제(이종례 님, 이정숙 님 아들) 군 - 9월 21일(토)
오후 5시 30분 엠배서더서울풀만호텔 그랜드볼룸 2층
- 전서인(전정희 성도, 최효옥 집사 딸/명륜연건구역) 양과 김현민(김원기 님, 조금순 님 아들) 군 9월 28일(토) 오후 1시
당산 그랜드컨벤션 센터 3층 리젠시홀
- 김혜원(김창선 안수집사, 정선영 권사 딸/화양자양구역) 양과 류호승(류정현 집사, 선상희 권사 아들) 군 - 10월 26일(토)
오후 1시 본교회당

■ 장례식

- 윤윤곤 성도(진필호 명예권사 남편/낙산구역) 별세, 9월 12일 수원승화원에 모심
- 김영수 성도(한진숙 성도 남편/낙산구역) 별세, 9월 17일 백합의 들에 모심
- 이권선 은퇴권사(김재원 안수집사 모친, 이혜석 권사 시모/성북1구역) 별세, 9월 18일 동화경모 공원에 모심
- 길화자 성도(김명희2 집사 모친, 길도영, 길민주 성도 외조모/연희홍제구역) 별세, 9월 20일 금산군 남이면 선산에 모심
- 김형순 권사(양윤정 집사 모친, 김태곤 집사 장모, 김민성, 김민준 성도 외조모/응암역촌구역) 별세, 9월 21일 안성유토피아에 모심
- 이계만 님(이성훈 성도 부친, 김미경3 집사 시부/경인구역) 별세, 10월 11일 인천 가족공원에 모심
- 전태훈 집사(전영선 성도 부친, 박정환 성도 장인, 박아일리예린 성도 외조부/쌍성연동 6구역) 별세, 10월 21일 포천서울교회 묘원에 모심
- 허문정 공로권사(진종환 은퇴장로 부인, 진준호 집사, 진현경 집사, 진재학 집사 모친, 김건수 집사 장모, 정현정 집사, 이지현 성도 시모/압구정청담삼성) 별세, 10월 30일 충남 금산 선영에 모심
- 이양임 집사(주명재 집사 모친, 한성자 집사 시모/마포용산구역) 별세, 10월 29일 백합의 들에 모심
- 이계광 성도(이성식 성도 부친/동작관악구역) 별세, 11월 3일 임실 호국원에 모심
- 정정임 은퇴집사(신연길 은퇴집사 부인/성북1구역) 별세, 11월 6일 경기도 양평 자하연 팔당에 모심
- 김숙자 권사(박관일 휴무안수집사 모친, 이영화 집사 시모) 별세, 11월 7일 분당 메모리얼파크에 모심
- 이규식 성도(이나옥 성도 부친/용인구역) 11월 7일 별세, 한양대학교에 시신기증하심으로 안장은 추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 박경순 집사(김혜경 권사 모친, 이수진 장로 장모/동작관악구역) 별세, 11월 12일 과산 호국원에 모심
- 이향수 명예권사(나병연 성도 부인, 나성욱 집사 모친, 최은희 집사 시모) 별세, 11월 14일 연동동산에 모심



(이름:

연락처:

소속:

)

8-9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5,000원 상품권)



이만희(서초방배)-7110



조선영(명일하남)-7541



남미열(수유3구역)-1320



진예현(초등부)-0117

□윤문희(성북2구역)-9147 □박은빈(중등부)-7823

*10-11월호 연동컬러링에 색칠해 사무처 혹은 연못골 이메일(ydpc3000@gmail.com)로 보내주세요. 추천해 상품권(5000원)을 드립니다. 색칠하기가 돋보인 컬러링은 다음 호에 실립니다. 주일학교 학생은 소속 부서를 꼭 적어주세요.



연못골 제 56권 617호

- 창간일 1969년 1월 26일
- 발행일 2024년 11월 17일
- 발행인 김주용 편집인 김성영 지도목사 박요한 편집장 박현미
총무 진상협 원고접수 ydpc3000@gmail.com
기자 고현수 김중은 박윤신 송재호 양진실 오수희 이경아 이지원 임재철 주태성
신입 박동진
-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우편번호 03128)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7 전화 (02)3676-3000, (02)763-7244
위임목사실 (02)3673-5100 팩시밀리 (02) 745-5905 인터넷 <http://www.ydpc.org>
- 상담실 (02)766-0675 연동복지재단 (02) 3673-0086 강화수양관 (032)932-2929

사진으로 보는 연동



행복한 연동인

당신이 있어 연동이 행복합니다



소중한 너,
을 한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잘했어요.
그만하면 된 거죠.
괜찮아요.
한바탕 하하호호갈갈 크게 웃으며
또 한 걸음 가면 되는 거죠.



10-11월호(617호)